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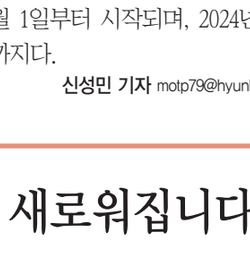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2월 21일)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수행의 師表, 대종사 품수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수행의 사표(師表)에게만 주어지는 조계종 대종사 법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12명의 대종사가 탄생했다. 조계종은 1월 8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인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들은 종정 진제 스님으로부터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법계증을 받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동국대 경주캠 신임 총장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 선임

이사회서 선출… 개교 이래 첫 여성 총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총장에 이영경(60 · 사진) 조경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월 9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제325회 이사회를 열고, 이영경 교수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총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여성 교수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영경 교수는 서울시립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미국 텍사스 에이엔엠대학(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과학기술대학장,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영경 교수는 후보시절 제출했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를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혁신과 도약의 동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우리 대학은 1978년 설립되어 지난 40년 동안 5만 여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개교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의 주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현재 우리 대학이 당면한 현실과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영경 교수는 선출 직후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지역 강소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영경 교수는 "종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구현 및 차별화, 강소대학으로의 체제구축, 특성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로 혁신하겠다"며 "학생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학생지원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 개혁 및 다양한 국책사업수주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경 교수의 총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돌 포교사단 '대중 속으로'

포교사단 20주년 성과와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최대 재가단체인 '조계종 포교사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대중화 원년을 선포, 대중홍보와 체계 현대화에 본격 나선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최근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체계 정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00년 3월 8일 1200명의 포교사가 조계사에서 모여 출범한 조계종 포교사단은 출범 초기 7개 지역단에 불과했지만 현재 국내외 14개 지역단에서 5000여 포교사들이 활동하는 한국불교 최대 재가단체로 성장해왔다.

새 포교사 증대 '홍보' 주력

최근 포교사단은 신규 포교사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탈종교화와 고령화의 시대 흐름 속에 한때 900여 명에 달했던 신규 포교사는 매년 감소, 2018년 428명로 바닥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포교사단은 그동안 불자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포교사'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신규 포교사는 460여 명으로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상황. 포교사단은 1월 말까지인 포교사 고시 응시에 대한 전국 불교대학 홍보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를 비롯해 사찰에서만 진행해 왔던 팔재계 수계법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한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9월 중 개최 예정인 팔재계수계법회의 경우 서울시청광장에서의 진행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장소 대여 신청과 승인이 나는 6월 경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며 "5000여 포교사들이 한데 모여 부처님 제자로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을 수지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만큼 종단 주요 스님들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사회 저명 불자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포교활동사 집대성, 위상 고취

창단 20주년인 3월 8일에는 동국대 중강당에서 20주년 기념법회와 제7회 포교사의날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포교사단의 역사와 포교사 활동상을 담은 〈포교사단 20년사〉 발간과 포교현장 다큐 제작 계획 등이 공개된다.

포교사단이 걸어온 길

1982. 3	도선사서 포교사 240명이 품수. 포교사 제도 시작
1995. 3	포교원 1회 포교사 고시 실시. 포교사 302명 배출
1999. 3	소년소녀가장돕기사업 시작
2000. 3	김기병 초대 단장으로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000. 5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설립
2003. 8	해인사서 제1차 팔재계 대법회 봉행
2006. 10	'사단법인 좋은인연' 창립
2007. 10	1기 전문포교사 44명 배출
2010. 11	1회 포교사단 신행수기공모 시행
2011. 9	〈포교사단 10년사〉 발간 및 봉정
2014. 3	'포교사의 날' 제정

포교사 응시자 반등 추세
불교대학 홍보활동 전념
서울광장 팔재계법회 추진

현대화 단복 개정 및 보급
후원체계 등 내적성장 필요
"행사보다 대중포교 주력"

방 단장은 "과거를 살피는 일에서 미래를 밝히는 일이 있기에 포교사들의 활동을 모두 집대성해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말 개정된 새로운 단복의 보급과 함께 통일된 의식집 발간 및 교육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단복은 보다 밝은 갈색으로 변경되며 포교사 마크가 자수로 새겨진다.

포교사 인식 제고 필요

20주년을 맞은 이러한 활동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그동안 각 지역단 창립과 조직 정비 등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시대변화에 따라 이젠 포교사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내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며 "현실상 중앙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후원체계 확립과 조직 내 소통에도 보다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학 포교사단 사무국장은 "지역단과 운영위원 토론방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 단장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에 포교사단의 생명이 있기에 앞으로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 속에서 진행되는 포교에 진력하겠다. 지난 20년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 '4H'섹션으로 새로워집니다

2020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4H(Headline, Harmony, Helpful, Healing)를 의미하는 H섹션을 시작합니다. 차별화된 분야별 콘텐츠를 통해 새해 독자 여러분에게 한걸음 다가가겠습니다.

News Headline은 불교계의 한 주간 주요 소식들을 선별해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Magazine Harmony는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문화 출판 학술 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Series Helpful은 읽으면 도움이 되는 선 · 역사 · 차문화 · 교리 등 전문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Mind Healing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명저와 전문가 강의, 사유의 단상들을 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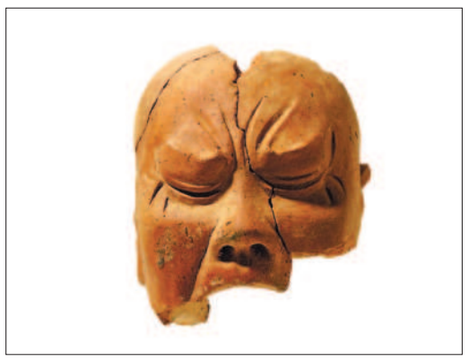


‘사리장엄’ 친견으로 경자년 열자

국립익산박물관 10일 개관
미륵사지 남서편 지하 위치
유적 밀착형 박물관 ‘눈길’

미륵사지 유물 3천점 전시
3월까지 ‘사리장엄’ 특별전
주요 사리장엄구 한자리에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전시될 불교 문화재들. 사진 왼쪽부터 미륵사지석탑 장엄구,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익산 제석사지 출토 승려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도(古都) 익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박물관이 공식 개관했다.

익산 미륵사지에 위치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신상효)는 1월 10일 박물관 개관식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았다.

국립익산박물관의 전신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며 지난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같은 해 12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전환된 지 4년 만에 문을 열게 됐다.

삼국시대 불교사원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미륵사지 남서편에 자리한 국립익산박물관은 연면적 7,500㎡, 전시실 면적 2,100㎡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한 유적 밀착형 ‘히든(숨은) 박물관’인 것이 특징이다.

국립익산박물관은 현재 미륵사지 출토품 2만 3000여 점을 비롯해 전북 서북부의 각종 유적에서 출토된 약 3만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실에는 국보 · 보물 3건 11점을 포함한 3000여 점의 전시품을 선보인다.

상설전시는 모두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됐다. 먼저 1실은 백제의 마지막 왕궁으로 주목받는 익산 왕궁리유적과 백제의 왕실 사원인 제석사지, 백제 최대 규모의 돌방무덤인 쌍릉에서 출토된 자료들을 소개하여 우아하고 완숙한 사비기 익산의 백제문화를 조명한다.

2실에서는 삼국 최대의 불교사원인 미륵사지의 역사와 설화, 토목과 건축, 생산과 경제, 예불과 강경 등 다양한 면모를 소개한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별도의 전시공간으로 꾸며 관람의 집중도를 높였고, 미륵사지 석탑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을 함께 설치했다. 3실은 문화 교류의 촉진자이자 매개자였던 익산문화권의 특성을 부각한다.

국립익산박물관의 상설전시실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들이 상당하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이 백제 멸망 이후인 통일신라시대에도 보수 정비되었음을 알려주는 ‘백사(伯士)’명 납석제 항아리가 눈길을 끈다.

‘백사’는 통일신라시기 여러 금석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인에 대한 호칭으로, 이는 백제와 연결된다. 백제에서는 석탑, 기와, 종을 만드는 관리를 와박사(瓦博士) · 노반박사(露盤博士)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일반에 확대되며 적용된 것이 ‘백사’다.

‘익산 제석사지 출토 흙으로 빚은 승려상’도 주목할 만하다.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리며 비탄에 빠진 표정의 승려상은 일본 호류지(法隆寺) 서원 5층목탑 내부의 소조상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탑의 4면 중 북쪽에 배치된 부처의 열반에 슬퍼하는 제자상과 매우 닮았다. 폐기장에서 확인된 여러 점의 승려상들은 목탑 또는 금당 안에서 불교 고사와 관련된 여러 장면을 연출하는데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립익산박물관은 개관 기념 특별전시 ‘사리장엄-탑 속 또 하나의 세계’를 오는 3월 29일까지 개최한다. 국립익산박물관의 대표 문화재인 백제 왕실 발원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국보 제3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 보물 제1925호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 등 주요 사리장엄 9구를 포함하여 총 15구를 한자리에 모았다.

전시품 중 국보 · 보물 19건에 이르며, 광주 서오층석탑에서 출토된 30여과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따로 전시되어 함께 감상하기 어려웠던 경주 감은사지 서탑 사리장엄 외함(보물 제366호) 과 동탑 사리장엄 외함(보물 제1359호)이 나란히 진열돼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국립익산박물관의 개관으로 미륵사지는 불교와 생태, 문화가 어우르는 복합문화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신상효 국립익산박물관장은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쌍릉 등 익산문화권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보존하며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복합문화기관을 지향한다”며 “향후 익산시와 협력해 미륵사지 남쪽 108,743㎡ 지역에 전통문화체험관, 자연지형 녹지, 광장, 주차장 등을 마련하고 각종 교육 · 문화행사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륵사지 내에 위치한 국립익산박물관의 전경.

원행 스님, 상월선원 새해 철야정진 법문

“천막결사 원만회향 기원” 강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월 4일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동참해 결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며 법문했다.

동안거 해제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조계종 상월선원의 정진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함께 가행정진에 나섰다.

원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부 · 실장 및 국장단 스님들은 1월 4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례 상월선원에서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철야정진은 1시간 동안 저녁예불과 신묘장구대다라니 정근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재가불자 300여 명이 함께해 한파 속에서도 정진 열기를 불어넣었다.

정근에 이어 원행 스님은 법사로 나서 천막결사를 진행 중인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원만하게 정진을 마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는 예로부터 위기에 처하거나 수행가풍이 흐트러질 때 많은 결사를 해온 역사가 있다. 근래에는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전개된 봉암사 결사가 있다”면서 “그 뒤로 크고 작은 결사가 있었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근래에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귀감이 되는 결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또한 지난해 11월 방문한 파키스탄 간다라불교 유적에 대한 설명과 라호르박물관 고행상의 한국전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도에서 중국, 한국으로 퍼진 불교사를 되짚으며 대승불교의 참된 가치를 불자들이 가슴에 새겨 자부심을 갖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법문이 끝난 뒤에는 봉은사 봉은국악합주단의 야단법석 공연이 펼쳐졌다. 1시간 반가량의 공연은 철야정진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철야정진 참가대중은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과 108배, 좌선을 이어갔다.

위례=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스님 분한신고 하세요”

2월 3일부터 정기분한신고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가 올해 진행된다. 조계종 스님은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도록 모두 분한신고해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단 소속 모든 재적승을 대상으로 정기분한신고를 시행한다. 정기분한신고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스님들이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스님의 경우 분한신고서, 신상명세서, 자필유언장,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승려증,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분한신고서, 신상명세서, 자필유언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승려증, 증명사진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는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올해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분한신고에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의 스님은 월 5천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의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해진 기간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계종 승적이 말소된다. 분한 심사에서 환속이나 혼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권 제적된다. 반면 2010년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은 사유서와 사찰거주 확인서,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 도반 등의 수행확인서를 제출해 복적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한신고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교구본사 종무소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찰교무팀 (02)2011-1703

윤호섭 기자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전통강원 부설 특별강원” 개설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모집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퇴근을 하면서 주 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0년 3월 4일(수)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출퇴근 가능
▣ 과 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 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성천스님, 목우스님, 외래 초빙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 특 전
▶ 출퇴근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에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문의전화
061-754-5247, 5953, 담당(교무국장) : 010-4576-6393

▶선암사 대웅전 본존불 개금불사에 동참바랍니다.
▶성지 순례 및 방생지를 태고총림선암사로 오시면 무료입장, 무료주차 및 주차장에서 도량까지 사중버스 운행, 법회를 진행 협조, 점심공양 사전 예약 요청 시 무료 제공, 방생 장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시각 합장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우) 57909 ☎ 문의전화 : 061-754-5247, 5953, 팩스 : 061-754-5043 / 홈페이지 www.seonamsa.net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소방관 心火, '소방승'이 끕니다

1월 8일 부산서 불교최초 소방승 탄생

영도불교聯 · 항만소방서 MOU
스님 · 정사 등 4명 위촉, 활동
템플스테이 명상 교육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 도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내 최초로 소방관을 위한 소방승이 위촉됐다. 오른쪽부터 복전심인당 주교 석인정사,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최대봉 항만소방서장, 사단법인 용화선문 이사 정명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혜벽 스님.

국내 최초로 '소방승'이 위촉됐다. 소방승은 말 그대로 소방관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마음을 돌보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사고 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안은 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다. 뾰족하게 극복할 방법이 없는 그들을 위해 불교계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소방관들은 협약식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자 그 어느 때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함을 드러냈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와 항만소방서(서장 최대봉)는 1월 8일 항만소방서 3층 강당에서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업무협약식(MOU)'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개회 △양 단체장 인사말 △협약 주요내용 설명 △업무협약 서명 및 기념촬영 △소방승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을 통해 영도구불교연합회와 항만소방서는 생명존중을 위한 상호협력과 화재 및 사고 등 주변에서 도사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전문교육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는 소방관들에게 템플스테이 및 명상교육 등을 제공하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참된 마음 회복과 안정을 얻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사찰에 안전교육 및 신도를 위한 응급처치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승은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사단법인 용화선문 이사 정명 스님, 복전심인당 주교 석인 정사가 위촉됐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무엇보다 소방관을 위한 불교계 첫 소방승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며, 이를 시작으로 소방관을 위한 소방승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했다.

호법 스님은 "오늘 이 협약식과 소방승 위촉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며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현장에 나간다. 게다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 그 어떤 분들보다 마음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소방관을 위한 활동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소방승 위촉이 좋은 선례가 돼 더 많은 곳에 소방승이 생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대봉 항만소방서장은 "소방관들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돼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싸워 이겨야 하는데 명상과 마음공부를 통해 앞으로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영도에 사찰이 60여개가 있고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 도성 스님(태종사 조실) ·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을 비롯해 최대붕 항만소방서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종교 · 시민사회, 남북 관계개선 촉구

KCRP 등 대북제재 완화 기자회견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남북관계를 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를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은 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어떠한 경우에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됐던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면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인내하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UN과 미국이 취하는 대북제재 조치를 인도적 분야에 한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미국과 북측,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평화행동에 함께해주길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最古 한글 필사 '능엄경' 보물 지정

문화재청 1월 6일 8건 지정공고

고양 원각사 성보博 소장본
여백에 한글 · 한문 주석 빼곡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 자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손글씨 자료를 담은 능엄경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이하 수능엄경)을 비롯해 조선시대 도자기 · 전적과 가야문화권 출토 유물 등 8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보물 제2056호로 지정된 〈수능엄경〉은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 중 하나로, 보물로 지정된 경전은 총 10권 중 권 1~2에 해당한다. 현재는 고양 원각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원각사의 〈수능엄경〉은 태조 이성계가 승려 신총에게 대자(大字, 큰 글씨)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년(태종 1년)에 판각 · 간행한 것이다.

특히 원각사 〈수능엄경〉은 국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경전의 여백에 붓으로 정교하게 쓴 한글과 한문 주석과 석독구결(釋讀口訣 · 우리말의 조사, 어미 등을 나타내는 토를 붙여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 빼곡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세기 말까지만 쓰였던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2015년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조사단은 "1461년 이전에 쓴 현존 최고(最古) 한글 필사 자료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15세기에 한문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과정이 확인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화재청 역시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보물로 지정해 연구 ·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1971년 무량사 무량사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 중 발견된 금동불상들로 당시 금동보살좌상(1구)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이 확인됐다.

특히 2층 탑신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가 부족한 고려 전 · 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이바지할 성보로 평가받고 있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은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보살좌상, 지장보살좌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 역시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문화재청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으로도 조각기법이 우수하다.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밝혀준 준다는 점에서 역사 · 예술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인 '석독구결'이 빼곡히 담겨 있는 원각사 소장 〈수능엄경〉의 확대 화면.
훈민정음 창제 직후 불교경전을 필두로 한 문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흔적이 남아있는 귀중한 자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기부금 단체 지정

후원금 영수처리 가능, 세제혜택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병불련)가 구랍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의 별도지정을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수익을 공공 목적에 사용하고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때 지정된다.

병불련은 1999년 10월 창립 이후 국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근로자, 티벳난민단체 등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해왔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로 본격 출발해 전국 25개 회원 병원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 410여 봉사자들이 자비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류재환 회장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후원액에 대해 기부영수증 발행을 통한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불련은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수좌 적명 대종사 영결식·다비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글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수좌이신 적명대종사 영결식·다비식을 12월 28일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도와 봉암사 대중 그리고 전국선원수좌회는 스님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봉암사 태고선원 수좌 적명 대종사 49재 안내		
초재	12월 30일 (음.12월 5일)	오전10시
2재	1월 6일 (음.12월 12일)	오전10시
3재	1월 13일 (음.12월 19일)	오전10시
4재	1월 20일 (음.12월 26일)	오전10시
5재	1월 27일 (음. 1월 3일)	오전10시
6재	2월 3일 (음. 1월 10일)	오전10시
막재	2월 10일 (음. 1월 17일)	오전10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문의 : 054)571-9088

불기 2563(2019)년 12월 28일

◈ 수좌 적명 대종사 문도 ◈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대중 ◈ 전국선원수좌회

영남불교계, 경자년 "힘찬 새 출발"

부산불교 · 울산불교 등 신년하례로 원력 다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불교계 신년하례가 이어졌다. 사진은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모습.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부산과 울산 등 영남불교계 스님과 재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고 한 해 포교활동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6일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부산불교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신년하례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불교문화축제에서 보여준 감동과 기쁨을 상기시키고, 올해는 더 힘차게 도약할 것을 서원했다. 이번 신년하례는 그 가능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역대 최대 인원인 1000여 명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문화포교 방향과 불국토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주요내빈도 참가해 경자년 새 출발을 함께 했다.

또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신기열)와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이무영)에 공로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회장 경선 스님은 "지난 한 해 부산불교계는 불교문화대축제를 개최하며 부산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증명해 보였다"며 "우리는 뜨거

부산 하례 1000여 대중 모여
각 구군연합회 소통 다지기로
울산불교 각종 문화축제 계획
영도구연합회 자비나눔 나서

웠던 지난 경험을 통해 더욱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올해도 위로는 불법을 외호하고, 아래로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은 "새해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고 낮은 자세로 상대를 대하며 자비를 실천해 밝은 사회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새기고 실천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교계 화합과 소통을 통해 불교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불교계는 올해 연등축제를 통해 불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팔관회 팔재계를 현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아울러 부산 16개 구군불교연합회 및 각 구군불교신도회와 소통하고 화합해 포교 사업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종단연합회(회장 산옹)은 1월 9일 롯데호텔울산 1층 오닉스룸에서 새해를 맞아 '울산불교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종단연합회는 2월 정월대보름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하며, 4월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태화강연등축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와 전통음식문화한마당, 합창 및 차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수행 및 문화행사로 한 해를 장식한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1월 3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2020년 신년조찬법회를 봉행했다. 신년조찬법회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새해를 맞아 모두가 행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발원했다. 아울러 나눔으로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신년조찬법회에서 이웃돕기성금 100만원과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승보공양으로 성도절 기려

조계종부산聯 성도절 맞아
제9회 승보공양법회 봉행

깨달음을 상징하는 촛불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밝은 빛을 지나 재가불자들은 공양물을 들고 무대로 올라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온 세상에 지혜가 밝혀진 날, 거룩한 성도재일을 맞아 불자들은 공양으로 찬탄하며 깨달음의 길을 서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1월 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했다. 화합을 주제로 열린 승보공양법회는 180여 명의 스님과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했으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문과 승보공양 및 포교활동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이어졌다. 특히 350여 명의 연합 합창단 공연은 승보공양법회를 더욱 여법하게 꾸몄다. 어린이들은 마치 스님들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중앙 무대에서는 승보공양의 의미를 살펴보는 새로운 뮤지컬이 선보여 대중에게 감동을 안겼다. 무대 뒤편에는 성인합창단이 거룩한 성도의 가치를 웅장한 음성 공양으로 찬탄하며 행사장을 장엄했다.

지난해와 달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새롭게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장상'을 신설했다. 매년 시장상을 전달해왔지만 올해는 특별히 포교에 앞장서는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상이다. 처음으로 회장상을 수상한 팀은 BBS법소리다. BBS법소리는 BBS 부산불교방송의 전법 미디어 활동을 후원하는 재가단체로 2015년 10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사옥건립 및 진주중계소 개소식 등 활동을 후원하고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장상은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과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이 받았다.

법회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대중을 향해 '부모미생전 본래진면목(父母未生前 本來眞面目)'이란 화두를 강조하며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를 몰두하고 지혜를 밝혀야 한다"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하면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고 설법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승보에 예경 올리는 일은 곧 불법을 향한 공경"이라며 "승보공양법회를 통해 불자들이 불법승 삼보의 가치를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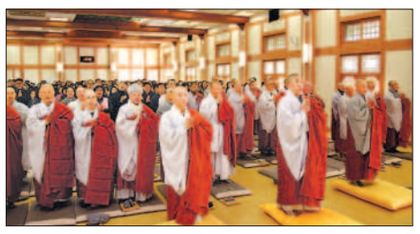
한편, 승보공양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수불 스님, 회장 원허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서보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는 1월 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했다.

화엄문도 발전 함께 이룬다

구례 화엄사, 화엄법회 및 제2회 화엄시상식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월 4일 화엄원에서 '불기 2564년 경자년 화엄법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2020화엄사 교구발전을 서원했다.〈사진〉 행사는 덕문 스님을 비롯한 교구 내 문도스님 50여 명과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화엄시상식, 광주포교당 기금전달식, 신년법문이 진행됐다.

덕문 스님은 신년법문을 통해 "경자년 한 해에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자.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회 화엄시상식에서는 벽암록, 종용록 등 다수의 불교서적을 번역한 지현 스님, 빠알리 율장을 강연하는 전재성 박사, 해군 제6항공전단 해항사서 군포교 하는 상월 스님, 해군사관학교 영내 사찰인 호국사, 서울역 목요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연꽃향기 등이 수상했다. 또한 화엄사는 전통사경 활성화를 위해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에 김경호 작가를 위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를 완성시키는 길' 수련회

한마음선원 청년회, 진주지원서 연합 개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청년회(회장 박훈)는 구랍 28~30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청년회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수련회는 안양본원 소속 청년들과 진주지원 청년회가 연합으로 진행했으며, 1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련회 첫날 입재식에서 청년들은 '나를 완성시키는 길' 청규를 함께 낭독하며 각자 수련회를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을 서원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관이다. 잠깐이지만 한 찰나에 부처님 마음이 돼라. 요동치는 마음을 지켜보는 힘이 중요하다"며 "놓친 근본을 지키고 나가야 마음이 통한다. 수련회 동안 일거수일투족 집중해서 체험해보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화여고 졸업생 121명 배출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교장 이봉오) 제32회 졸업식이 구랍 30일 동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최현진 학생 외 12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선화여고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명문사학으로 거듭나 청정한 마음을 닦는 교육도량으로 성장했다"며 "선화여고가 맑고, 향기롭게 청정한 학교로 성장하는데 동곡재단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는 2019학년도 제32회까지 총 57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리 보는 2020년 불교 일정

희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유독 불교 주요 단체들의 기념 행사를 비롯해 국제불교교류 및 학술대회들이 예정돼 있다. 연말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기대를 모은다. 올해 불교계 주요 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행사 '다채'

2月 병불련 20주년 기념법회

최근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는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서는 이동숙 병불련 이사의 사회로 류재환 회장의 인사말과 김은실 이사의 연혁 보고, 최근 구입한 정밀초음파기기 봉정 및 발원 등이 이어진다.

3月 부다가야 '분황사' 기공식

지난해 말 설매 · 연취 보살의 50억 원 희사와 통도사의 인도 부다가야 사찰부지 기증으로 가시화된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이 오는 3월 첫 발을 뗀다. 현재 조계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3월 말 인도로 출국할 예정이다.

포교사단 20주년 '포교사의날'

3월 8일 포교사의날을 맞아 포교사단은 2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릴 이날 기념법회서는 그동안 포교사단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장이 될 예정이다. 포교사단은 현재 TF팀을 조직해 이날 법회뿐만 아니라 9월 중순 팔재계 수계법회 등을 통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포교사단은 현재 4700여 포교사가 활동중이다.

4月 공휴일 첫 4월 부처님오신날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이다. 부처님오신날이 4월 중에 있는 것은 1975년 공휴일 지정 이후 최초다. 1974년 4월 29일 부처님오신날 이후 가장 빠른 날이기도 하다. 반대로 가장 늦은 부처님오신날은 1955년 5월 29일이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예년보다 빠른 관계로 국가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역시 4월 24~26일에 개최된다.

6月 제40차 한일불교 대회

1971년 한국불교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불교계를 시찰, 양국불교계의 유대 증진을 희망하며 시작된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올해 40차를 맞는다. 특히 40차 대회는 한국대회로, 오는 6월 8~10일 미륵신앙의 성지인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그동안 신행 · 환경 ·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양국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며 교류해왔다. 올해는 '한일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 아래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교류 40주년 기념식수, 사진전, 학술발표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된다.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100주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이를 위해 대불청은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해 100주년사 발간, 만해평화센터 건립불사, 100년사 다큐멘터리 제작, 만해유적 발굴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8月 대형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참여하는 주요 해외 학자로는 폴 해리슨(스탠포드), 재클린 스톤(프린스턴), 제임스 롭슨 · 김진아(하버드), 아키라 사이토(도쿄대), 하루나가 아이작슨(함부르크대), 로타르 레데로제(하이델베르크대) 등이다.

이들은 전통 불교학(문헌학)부터 명상 · 사회문제 · 윤리학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제불교인식논리학회 제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20개국 50여 명의 발표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대소승 학파의 교설과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 인접 종교철학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10月 제23차 한중일 대회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중국, 일본불교계의 화합을 다지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역시 국내에서 개최된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예비회담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한국불교계는 영축총림 통도사를 대회 개최지로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불자연합회 20돌

전국 공무원 불자단체인 공무원불자연합회가 10월 7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공불련은 600여 회원들의 활발한 신행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12月 연등회 인류유산 등재되나

경자년 연말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대할 수 있다. 12월 초 자메이카에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연등회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연등회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한국의 20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 현불 논단 |

전법 없는 불교는 없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해는 사라지고 미움만 남아
극단의 진영서 지구별 불탄다
불을 완전히 끌 수는 없어도
관리하고 제어하는 힘 길러야

해법은 연기법 따른 팔정도에
부처님 전법의지를 되새길 때
새해 모두가 전법여정 나서자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단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제야의 종을 치고, 새해 첫날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바다와 산에서 야단법석을 했다. 연기의 광장에 법석을 마련한 것인가? 근래에 양자 물리학자인 카를로 로벨리(Carlo Rovelli)가 지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을 읽으면서 붓다의 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로벨리는 시간이 객관세계에 균일하게 흐르는 실체가 아니라 물질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들의 관계라고 본다. 즉 시간이 장소에 따라, 사건들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2500년 전에 붓다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色)이 생멸 변화를 할 뿐이며, 따라서 물질의 행(行)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인간이 만든 시간은 제행무상의 변화 흐름 속에서 인간이 만든 틈이다. 새해의 야단법석도 이 변화의 틈을 통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뜻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지구별 전체가 불타고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지구의 생명체는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낙원으로 불리는 호주에서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참혹한 산불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생태계의 종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서로 증오와 갈등으로 불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진영의 불길 속에서 미움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TV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난다. 새삼 붓다의 산상수훈이 생각난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과 우루벨라 지방의 가야시사산에 올라 붉은 저녁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설법했다. 〈잡아함 8권 197권 시현경〉.

"사람들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사람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눈이 타고 눈의 인식 대상인 물질(色)이 타고 있다. 의식이 타고 있고 의식의 인식대상인 생각(法)이 타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타고 있는가. 그것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모든 불타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열반 즉, 빨리어로 닙바나(nibbana)는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할지언정 불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지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다. 우리를 태우는 불의 원인은 바로 집착과 욕망, 증오와 분노, 이리석음과 무지의 삼독(三毒)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삼독의 구덩이에 빠진 줄도 모르고 불길 속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

이제 그 불길을 잡아야 한다. 그 불길을 잡는 방법은 오직 연기법과 중도 사상에 바탕을 둔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이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이것을 전할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입멸할까"하며. 그러나 붓다는 위대한 전법선언을 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천신과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라.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웰라의 장군촌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 전법 없는 불교는 없다. 전법은 중생 구제의 길이다. 붓다에게 간곡하게 설법을 부탁한 범천의 말이 새삼스럽다. "세상에는 번뇌에 적게 물든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붓다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새해는 모든 불자가 전법을 위해 길을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원한다.

社 說

동국대 경주캠 총장 선출에 부쳐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총장에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여성 교수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영경 교수는 불교계에서는 남편인 이병인 부산대 교수와 '불교 환경 종책의 브레인'으로 통한다. 실제, 이영경 교수는 1996년부터 조계종환경위원회의 전신인 사찰환경보존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도 8기 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경 교수는 종책 개발 및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며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영경 교수는 건학이념 증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불교문화 · 예술 활용 교육을 보완할 것과 불교에 기반한 인성 교육을 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교연구 및 사업을 위한 불교역사문화 콘텐츠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 불교계와 지자체, 동국대와 종단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약속했다.

이영경 교수의 목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지역 강소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영경 교수는 △대학 특성화 △지속가능한 학사구조 및 제도 구축 △대학역량강화 △구성원 주인의식 회복 △재정 및 기금확보 등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사회의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혁신이 필수다.

천년 고도 경주에 자리한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이영경 교수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三毒 불길 끄는 '소방승' 기대

2017년 2월, 前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은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모름지기 수행승은 삼독(三毒)의 불길을 잡는 소방관이 돼야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화마를 마주하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소방승'이 탄생한 것은 사막 위의 오아시스처럼 아름답고 시원하다. 무엇보다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가 소방관들의 심신치유를 위해 먼저 항만소방서에 소방승 위촉을 제안해 그 의미가 크다.

소방승 위촉과 함께 양측은 앞으로 긴급재난 현장 구호활동 시 협력하고, 영도구불교연합회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위한 교양교육과 행사를 지원한다. 이는 곧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관들에게 템플스테이와 명상지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수행자의 수행력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법화경〉 '비유품'의 '삼계화택의 비유'에서는 큰 기와집에 불이 나지만 아이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급한 아버지의 외침도 소용이 없다. 그러자 아버지는 장난감 수레가 밖에 있다고 말해 아이들을 구한다. 한편으로 수행자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관들은 항상 사고현장을 함께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마음의 여유를 가질 틈이 없다.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아픔은 덤이다. 수행자들이 소방관들의 마음을 돌봐야 하는 이유다. 삼계화택의 비유처럼 지혜와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긍정, 창조의 힘

얼마 전,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의식하는 마음'과 '창조하는 마음'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죠. 회사로 말하면 '의식하는 마음'은 계획하고 지시하는 사장과 같습니다. '창조하는 마음'은 사장이 지시하는 일을 심사숙고해 제품을 만드는 공장장이나 이를 판매하는 영업부장입니다. '의식하는 마음'이 어떤 생각을 지니면, 그 지시를 받아 행동으로 옮겨 실현 가능토록 처리하는 것이 창조하는 마음입니다. 의식하는 마음이 기분 좋지 않다든가, 업무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든가, 소극적 자세를 지닌다면 '창조의 마음'이 생기지 않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겠지요.

의식하는 마음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 힘이 넘친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한다면 회사는 번창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하는 마음'과 '창조하는 마음'이 서로 조화가 이뤄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마음'에서만 오로지 '창조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림 · 최주현

스스로 강한 의식 꾸준히 불어넣다보면
어느새 그 의식이 현실로 내게 다가온다

특히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처음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창조하는 마음'이 위대한 힘을 얻기 위해선 '의식하는 마음'을 완전히 관찰해 제대로 지시 받아야만 하죠. 그렇다면 '창조적인 마음'을 가꾸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건강에 자신 없다면 운동을 하거나 그 어떤 일상생활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는 건강해지고 있으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되뇌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이처럼 강한 의식을 날마다 불어 넣게 된다면 진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변할 것입니다. 강한 의식을 자신의 창조 의식 속에 저장한다면, 필요한 경우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 사고인 '창조적인 마음'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식의 생각'을 '창조의 생각'에 부여해 나타난 결과죠.

성공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잠재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긍정할 때 행운이 오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에겐 하늘도 복을 주기 싫을 것입니다.

만약,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길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를 '의식하는 마음' 속에 주입시키세요. 그러면 '창조적 마음'이 생깁니다. 긍정의 마음이 창조의 마음을 부르기 때문이죠.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0 謹賀新年 경자년
강남한양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허재균 합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30 반원상가 2층 전화 02)533-9058


떡 팔아 자비행 펼치는 보현보살들

부산불교보현회 떡국떡 봉사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떡 이고 부산골목 누비는 보현회

1982년 보현회 창립, 회원 3백여 명

2002년부터 소년 · 소녀 가장 위해

떡 판매금으로 교복을 사주기 시작

최고급 쌀 떡국 떡 달동네까지 배달

금정중 등 종립학교에 보시금 전달

지난해 정부의 교복 지원 사업 이후

장학금 모금 사업으로 봉사행 이어

떡국이라는 음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음식이다. '나이 한 살' 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떡국은 새해를 맞이할 때 덕담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 아침,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다. 그래서 주부들은 설날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떡을 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 그런데 설날이 오기 한참 전부터 떡국에 들어 갈 떡을 사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 봉사자들이다. 그들은 음력 설날이 오기 전, 사람들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떡국의 주 메뉴인 가래떡을 판매한다.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 줄 텐트 하나 없이 하얀 떡이 담긴 봉투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 사세요!"를 외친다. 그리고 달동네에도 직접 머리에 떡을 이고 배달을 하고, 버스로 두 시간이나 걸리는 변두리까지 직접 전달한다. 18년째다.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의 교복을 맞춰주기 위해서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1월 8일, 떡국떡을 팔기 시작한 보현회 봉사자들을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보현정사에서 만났다.

떡으로 장만한 새 교복

보현정사에 도착하니 봉사자들은 떡 봉투에 담을 편지를 접고 있었다. 18년 동안 소년소녀가장들의 교복을 맞춰주고 있음을 알리는 편지였다. 떡을 사줘서 고맙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안성이 보현회 회장은 그동안 맺어온 인연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현회가 떡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0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도움을 줬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건네던 때였다.

대구에 살던 소년소녀가장 남매 중 한 명이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 시장에서 필요한 옷을 사주고 있던 중, 무심히 안성이 회장은 "교복은 선배들에게 받아 입으면 되겠지?"라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눈에 살짝 눈물이 비치는 것을 보고 안 회장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아이들의 엄마는 집을 가출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중풍으로 반신불구였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낡은 교복을 받아 입어야하는 아이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를 타고서 부산으로 내려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꼭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을 그 때 했지요"

안 회장은 아이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서 함께 울었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기도하며 무엇으로 교복을 사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보현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보현정사에서 나오는 기도비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없을 때였다.

회비와 기도비 말고도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출연한 교통방송에서 한 봉사자가 떡국에 들어갈 떡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바로 실행에 옮겼다.

안 회장은 당시 가장 쌀이 좋다는 청도쌀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청도까지 올라갔고 쌀 20가마니를 그 자리에서 구입했다. 학생들의 교복값 마련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떡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좋은 등급의 국산 햅쌀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쌀로 떡을 만들다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판매가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떡을 사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좋은 떡을 사고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맞춰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봉사자들은 모든 수공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만 주면 말려서 자르고 봉투에 담고 배달까지 모두 봉사자들이 담당하기로 했다. 그렇게 봉사해서 수공비를 아껴 떡을 팔면 2500원이 남았다. 소비자는 좋은 쌀로 만든 떡국 떡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보현회 회원들은 몸은 고되어도 교복 맞춰줄 학생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어깨춤이 나왔다. 지금도 떡 2.2kg 한 봉지에 가격은 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매년 떡을 먹어 본 사람들은 다시 보현회에서 떡을 주문하고 단골이 된다.

그렇게 판매한 떡값은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 해동중학교, 홍제중학교에 전달된다. 지난해에도 금정중학교에 120만원, 해동중학교에 80만원, 홍제중학교에 8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이뿐 아니라 보현회가 봉사를 이어오는 천마재활원, 성우원, 마산결핵요양병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 떡 150 봉지를 무료 보시하고 행복한 새해를 발원한다.

보현정사에서 만난 봉사자들 가운데는 백발인 분도 있다. 나이가 80세에서 60세까지 모두들 적은 나이는 아니다. 하지만 달동네 배달을 위해 떡을 머리에 인 그들의 얼굴에선 힘겨움 대신 밝고 맑은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두 개만 들어도 5kg에 가깝지만 무거워도 괜찮으니 하나만 더 팔리면 좋겠다고 했다.

보현행으로 함께 성장하는 도반

안 회장은 웃으며 보현회 봉사자들을 향해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봉사를 통해 사무량심을 알고 서로를 섬기는 좋은 도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듯 봉사자들은 소감에서 "행복하다", "보람된다", "실천을 통해 성장했다" 등 봉사를 통해 얻은 기쁨을 설명했다.

안성자(65 · 부산 좌천동) 씨는 보현회가 창립된 40년 전부터 함께한 창립멤버다. 안성자 씨에게 봉사 활동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지 물었다. 안성자 봉사자는 추위라고 답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정을 해서 거리에 돗자리를 펴기는 했는데 아파트 높은 건물들의 그늘 속에 있다 보니 골바람 속에서 계속 떨어야 했다.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어도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했다. 게다가 방부제를 안 넣는 떡이라서 그날 가져간 떡은 모두다 판매를 해야 했다.

"자동차가 지나 갈 때 떡을 들고 달려가서 사달라고 하는데 사실 부끄럽지요. 근데 봉사의 기쁨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가족들도 지금까지 빠짐없이 도와주며 보태고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학생이지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보현회 봉사자 가운데 떡 판매 외 자신의 사비를 보태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어릴 적 힘든 가정 형편으로 한 달 동안 교복 없이 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말했다.

황혜숙(63 · 수정동) 봉사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보현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보현회 도반이 전해준 〈법화경〉 테이프를 통해 불교가 어떤 가르침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도반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아이 수능 볼 때 절에 가자고 한 사람이며, 또 한 분은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보현회에서 제작한 〈법화경〉 테이프를 준 도반입니다. 그렇게 불자로 성장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보살도를 실천할 때 이렇게 행복하구나 생각합니다. 행복의 원인이 실천임을 이곳에서 나눔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황혜숙 봉사자는 말을 마치며 "제가 돈을 벌려고 이 추위에 떡을 팔아야 했다면 결코 못했을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보현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을 도량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김주연(65 · 부산 좌천동) 봉사자는 보현회에서 판매하는 떡을 배낭에 담아 회사로 가져가 팔았다.

"회사에 갈 때 배낭에 떡을 넣어 불룩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직장에서 떡국 떡을 먹어본 친구들은 매년 다시 주문합니다. 봉사도 봉사지만 정말 떡이 맛이 좋아 제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김순임 (80 · 부산 범일동) 봉사자는 이제 나이가 80살이다. 30년 동안 보현회 봉사를 도우며 추억도 많이 생겨 삶이 풍성해졌다고 했다.

"너무나 추워 힘이 들지만 즐거운 추억들도 많습니다. 여기 회원들 중에는 할머니가 많아요.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 작은 손자들이 회원이 되기도 하지요. 3살짜리 회원이 떡을 들고선 '떡 사세요!' 를 외치는 데 얼마나 귀엽든지… 이제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서로의 가족을 알아봐주고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이 풍성해졌어요."

멈추지 않는 보현회

보현회 봉사자들은 떡이 무거우면 머리에 이고서 다녔다. 주문을 받은 곳이 있으면 산동네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버스를 타고서 배달을 갔다. 택배는 이익이 얼마 남지 않아 할 수가 없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익숙하지 않아 SNS를 통해 알리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보현회의 봉사는 멈추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의지였다.

지난해부터는 교복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안 회장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교복 지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보현회는 이젠 교복이 아니라 장학금을 마련한다. 보현회 봉사자들은 멈추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아이를 위해 다시 노점을 펼쳤다.

안 회장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산다면 분명 의미 있고 여법한 삶을 살게 된다며 그 외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오직 그뿐이라고 짧게 답하며 떡을 집어 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한 떡입니다. 떡 사세요!"

부산불교보현회는…

1982년 7월 창립됐으며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후 장애인과 국립마산병원(구, 국립마산결핵요양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18년 전 부터는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의 교복 마련을 위한 떡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정중학교 등 종립학교에 교복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정부의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성이 회장은 자원봉사와 불교 자비행 실천으로 1996년 진해 해군 법당에서 자랑스런 불자상, 2001년에는 부산 불교 신협 감사장, 부산 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상, 부산 불교 포교사단 공로패, 부산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상, 부산불교신도회 포교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제1회 108인에 선정됐다.





안성이 회장이 장애인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동중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정수행 성취 이루는 지름길”

책세상





안녕, 다람살라
청전 지음/운주사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달라이 라마 존자의 제자 청정 비구 청전 스님이 인도 다람살라서 존자님을 모시고 수행한 지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쓴 첫 번째 책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오로지 한자리 다람살라만을 고집하며,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 스님의 얘기 보따리는 맑고 따뜻한 스토리로 가득차 있다.

저자는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달라이 라마의 진면목과 이면, 스승과 제자간의 영적 교류, 순례길의 신비로운 체험과 깨달음 등을 처음으로 이 책에 소개했다. 따라서 이 책은 한 수행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체험담이자, 다람살라에 둥지를 틀고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낸 한 수행자의 인연담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한줄기 따뜻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전 스님은 1977년 송광사서 구산 스님을 친견하고 자각한 바가 있어 출가한 이래, 수행을 위한 순례길에 올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여러 곳을 거쳤다. 마침내 절대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만나고, 30년간을 다람살라 한자리서 한국인으로 처음 비구 제자가 되어 스승을 모시고 중단 없는 수행과 보시 봉사의 삶을 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존자님 가까이서 경험한 사실들을 처음으로 글로써 밝힌다. 이는 저자와 달라이 라마 존자와의 관계에서만 알아차릴 수 있는 개인적 경험들이다. 또한 이 책에는 순례길서

인도 다람살라서 30년 수행 생활
달라이라마 한국 첫 제자 수행자
수행과 봉사의 기록여정 담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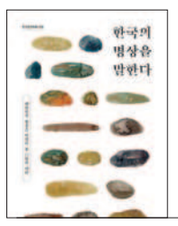
자신 직접 체험한 것만이 ‘진실’
순례길서 만난 놀라운 체험 소개
아름다운 티베트 자연 풍광 담겨

얻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티베트의 자연 풍광이 담겨 있어, 읽는 즐거움과 보는 재미가 가득하다.

스님이 평소 대중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것만이 진실한 깨달음이며 책에서 본 것은 번뇌일 뿐”이라고 고백했듯이, 난행 고행의 청정한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정신적인 성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서 몸소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스님의 고되고 험난한 라닥 지역으로의 봉사 여정이, 먼 옛날 구법의 길을 떠났던 구도자들의 치열하고 뜨거운 열정과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함께 티베트와 인도의 사원과 히말라야 깊은 산속서 맑고 청아하게 살아가면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한줄기 빛이 되어주는 청정 수행승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 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청전 스님이 내어 놓은 소박하면서도 흥미로운, 때론 가슴 시린 이야기들이, 이 책을 한 번 펼쳐들면 끝까지 단숨에 읽게 만든다. 그리고 이 책 곳곳에 펼쳐진, 진실한 수행자만이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과, 꾸밈없고 소박한 티베트인들의 삶과, 맑고 맑은 수행자들의 모습과, 티베트의 아름다운 풍광들이 독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줄 것이다.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스님에게서 우러나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산에서 내려온 명상, 대중화 꿈꾸다

한국의 명상을 말한다 한국명상학회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7천원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위해 모인 전문가들이 10년의 세월 동안 학회를 통해 다양한 수행을 하고 이제는 한국형 명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인 한국명상학회는 의학, 한의학,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명상 단체로 한국형 명상의 현주소와 명상의 장점, 실용적인 명상의 활용법, 현대 생활서 명상의 가치 등을 이야기한다. 챕터 1, 2는 한국서 서양 명상법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후 한국 명상학회의 노력이 실려 있다. 챕터 3은 한국명상학회를 이끄는 전문가 17인의 허심탄회한 대담, 챕터 4는 실용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챕터 5에서는 각 분야서 활용되는 명상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명상이 고통과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

명상이 우리 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수의 한마디 조언이 아닌 10년간의 노력을 담았다 좌선이나 단전호흡, 기 수련 등에 집중한 과거의 한국 명상은 나름의 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숨은 고수들이 산에서, 절에서 하기에 일반 사람들은 흔히 따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와중에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서구의 명상법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 사회서 명상이 널리 활용된다. 한국명상학회는 한국 명상의 깊이에 서양 명상의 실용성을 담고자 지난 10년간 힘썼다. 한국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원을 모아 교육하고, 정기 수련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앞서서 논문을 쓰고 학술대회도 열었다. 이 모든 것이 명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 17인은 아래 아홉 가지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명상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자신의 분야서 명상을 어떻게 접목하는가〉 〈실제로 명상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지난 10년간 명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명상 연구는 어떻게 하는가〉 〈본인이 특별히 좋아한 명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 〈명상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부작용은 없는지〉 〈한국 명상 미래는 어떨지, 다가올 미래 위해 어떤 노력 해야 할까〉 〈명상이란 무엇인가〉 등등.

명상 자체에 집중하면서도 그 활용법과 연구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또한 10년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상을 전파할지 고민하고 그 실용적인 대책까지 내놓았다.

17인의 전문 대담 뒤엔 몸과 마음의 건강, 고통의 해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진하는 전문가 16인의 생활 명상법이 실려 있다. ‘글쓰기 명상’을 통해 내면의 나와 솔직하게 마주하는 법, 걷기 여행 명상법 실행하는 법, 텃밭 정원 가꾸기 명상법 등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사람은 본시 착한디, 그란디 왜 잘못되는가 하면 욕심 때문이라 그것여. 그라믄 어떡하냐 하면 욕심만 버리면 된다 이거여. 그것 같고도 안녀. 또 뭐냐 하면 부지런하고 공부도 해야 허구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거 다 내가 아녀. 눈 따라가고, 귀로 들은 것 따라가다 보면 다 망하는겨. 내 안에 있는 내 맴도 나 아니지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맘여. 그라면 뭐로 중심을 잡아야 쓰것소? 그 맘은 부처님 같은 맘을 써야 한다” 243 P

장산 스님의 세상 속 사람 스케치

북 기자의 **책 속으로**



장산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5800원

이 책에는 전국 방방곡곡 홀연히 길을 떠난 장산 스님이 마주한 풍경들로 가득하다. 불현듯 도반의 연락을 받고서, 또는 계절이 바뀌거나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떠난 길 위에서 스님은 눈부신 정경과 인상적인 사람들을 만난다.

또 이 책의 표제가 된 〈달을 병에 담은 동자승〉에는 자상한 노스님과 순수한 동자승의 대화가 훈훈하게 그려진다.

세상 사는 사람들 속 장산 스님의 ‘이야기 스케치’에는 위트가 넘친다. 남원 광한루에서 춘향이와 이몽룡을 즉석 연기하는 유쾌한 청춘남녀, 울산 진하 해변을 덮친 해무를 보며 처용가를 읊는 교포 3세 고대 언어학자 헤일리 킴, 가야산 해인사에 살던 기인 앵금이 등 저마다의 개성을 간직한 이들이 보통의 우리네 삶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다.

장산 스님은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이 책의 각 글 말미에 짧은 시구절로 남겨 깊은 여운을 자아냈다. 책 곳곳에 그려진 세밀화는 다방면에 취미가 있는 장산 스님의 솜씨다. 스님은 숨겨진 옛날이야기들을 마치 곁에서 들려주는 듯 친근하게 풀어나가며 삶에서 되새겨야 할 지혜와 교훈을 전해준다. 김주일 기자



조형예술서 새로운 언어 찾다

‘강우방의 눈, 조형언어를 말하다’ 사진전

서울 인사아트센터, 1월 9일~20일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문자언어가 아닌 조형언어를 통해 인식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사진전이 열린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와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강우방의 눈, 조형언어를 말하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사학자 강우방이 40여 년간 촬영한 7만여 점의 사진을 지난해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록관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민에게 문화유산 기록보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술사 연구에서 사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2부로 나누어 구성됐다.

△1부에서는 강 원장이 40여 년 동안 찍은 7만여 점의 사진 중에서 회화 · 조각 · 건축 · 공예 · 자연과 조형 등 5개 영역에서 분야별로 500여 점을 선별해 영상으로 보여준다. 소개되는 사진들은 작가가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포착한 사찰건축과 탑, 불상 등으로 “풍토가 미술양식을 결정한다”는 작가의 확신이 담긴 사진은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려 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보여준다. 또한 작가가 서양미술을 연구하게 된 과정에서 찍은 해외문화유산 사진들도 함께 전시된다.

△2부에서는 강 원장이 미술사학자로서 이뤄온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조명한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작품들과 구석기시대 대모지신(大母地神)에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그려진 ‘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망라하는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동서고금의 작품을 살펴보며 강 원장의 조형언어 해석기법인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외에 작가의 카메라와 실측도면, 기록물 그리고 저서 30여 권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조형언어를 해독하고자하는 미술사학자의 실증적인 연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을 통해 문화유산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원장의 ‘영기화생론’은 우주의 충만한 기운을 옛 사람들이 추상적 혹은 구상적 조형으로 표현한 영기문에서 만물생명이 화생한다는 것인데, 세계의 조형예술품을 1만점 이상 ‘채색분석’하여 확인한 보편적인 이론으로 동서양의 수많은 미술사학자들이 방법론은 제시했지만 이론을 펴낸 것은 강 원장의 ‘영기화생론’이 지금까지 유일한 보편적 이론이다.

△영기화생론의 과정인 채색분석법은 조형예술품을 해독하는 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방법론이다. 돌이나 금속에 새긴 영기문은 채색이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비록 채색이 있는 회화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강 원장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영기화생의 전개 원리를 쉽고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채색을 달리해 분석했다. 인류가 만들어낸 조형예술품의 90%에 해당하는 ‘문양’의 실체를 파악해낸 것으로, 그 문양들이말로 미술사학의 주체이며 모두가 영기문임을 밝힘으로써 미술사학 연구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강우방 원장이 대우주라고 말하는 석굴암을 촬영하고 있다.

5개 영역 각 500여점 영상소개
사찰건축, 탑, 불상 등이 주류
영기화생론 등 연구 성과 소개
“조형예술품, 또 하나의 언어”



석굴암 금강역사 앞에 선 강우방 원장.

이번 전시의 취지는 선대가 만들어낸 조형예술품 자체가 언어라는 것, 그것이 조형언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형언어도 문자언어처럼 침묵의 음소가 있고, 음소가 결합하여 음절이 되고, 음절이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구(句)가 되고, 구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나는 평생 미술사학을 연구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미술을 새로이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그것도 인류가 창조한 건축, 조각, 회화, 도자기, 금속공예, 복식 등 모든 장르를 새로이 해석하여 매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가 지속적으로 학술발표를 하여 그들을 계몽하고 있다. 마침내 나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형언어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문법도 찾아냈기 때문이다. 문자언어에 상대하는 조형언어는 세계의 누구도 몰랐던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게 한다”며 “인류가 창조한 조형의 99%가 문양인데, 미술사학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시까지 해온 바로 그 세계의 문양들이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조형이며 만물이 거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미술품을 채색분석법으로 매일 매일 풀어내면서 인식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전시는 그러한 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이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02)363-1114

강우방 원장은

서울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고고인류학과에서 수학한 뒤, 일본 교토와 도쿄의 국립박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30여 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과 학예연구실장,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불교미술과 석굴암 연구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2000년 고구려 무덤의 벽화를 분석하던 중 학문의 전환기를 맞고 교직에서 물러났다.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을 설립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조형을 실마리로 삼아 ‘영기화생론’을 정립하며 세계 조형예술의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다. 저서로 〈한국미술의 탄생〉〈수월관음의 탄생〉〈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어느 미술사가의 편지〉 등이 있다.

용화사 안양시민 신년음악축전

1월 17일 오후 6시 용화사

안양에 새로이 자리 잡은 용화사는 새해를 맞아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용화사에서 불음을 전하는 신년음악회 ‘안양시민 신년음악축전’을 개최한다.

불자들만의 법회를 벗어나 세상 누구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대중을 초대하고, BTN라디오 울림과 특별 게스트들이 아름다운 신년 음악회를 함께 한다.

가수 김흥국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축전은 국악인 박애리를 비롯해 자전거 탄 풍경, 조영구, 요요미, 한가빈 국악그룹 락드림 등이 출연한다.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이 2020년의 새 소망과 희망을 발원하며 열리는 용화사 신년음악축전은 편안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마음에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님의 가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용화사 신년음악축전은 국악은 물론, 대중음악과 찬불가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신년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은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031)444-9985. 박재완 기자

제6회 불교무용대전 참가 공모

1월 6일부터 31일(오후 6시)까지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조계종 문화부와 함께 제6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비디오 및 서류심사 후 본선과 결선을 진행한다.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는 전통과 창작분야(현대, 발레, 한국 등 모든 장르 지원 가능)의 단독 및 합동공연이다.

접수기간은 1월 6일부터 31일(오후 6시)까지며, 접수는 이메일(buddhistdance@hanmail.net /김민주, 파일명은 ‘2019 국제불교무용대전 공모’ - 공모작 명칭)로 한다.

제출서류는 불교무용대전 참가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 출연자 및 스텝 명단 1부, 작품사진, 프로필 사진, 공연의 비디오 자료 등이다. 시상내역은 조계종 총무원장상, 서울시장상(예정) 등이며 우수작에 한해 추후 불교축제 및 사찰공연에 추천된다. 본선은 4월 3일부터 26일까지 성균소극장(매주 금~일)에서 진행된다. 결선은 5월 1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뮤지컬 ‘삼국유사’ 6월 서울 공연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6월 4일부터 7일까지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가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경북 군위군 공연(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을 마치고 서울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일연 스님이 펴낸 〈삼국유사〉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세 개의 이야기로 각색한 뮤지컬 ‘삼국유사’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전국을 돌며 모은 자료로 편찬한 우리 역사서이자 문화의 보고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 개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은 뿌리부터 하나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인각사와 군위군은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를 군위군의 대표브랜드 공연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보고 싶은 ‘국민뮤지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2차 세계대전으로 소실된 후 74년 만에 복원된 요메이덴.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시텐노지, 소실된 중세 전각 복원

창건주 쇼토쿠 태자의 부친 사당 '효행 상징'

일본 최초의 관사인 시텐노지(四天王寺)에 전화(戰火)로 소실된 전각이 다시섰다. 구랍 19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은 74년 만에 복원된 전각에 대해 보도했다.

구랍 18일 일본 오사카에 소재한 시텐노지는 요메이덴(用明殿)의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요메이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3월의 오사카 대공습으로 소실된 전각으로, 사찰의 창건주인 쇼토쿠(聖德) 태자의 부친 요메이(用明) 일왕을 기리는 사당이다. 요메이덴은 400여 년 전 시텐노지 중창기록에도 그 존재가 확인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전각이다. 소실 전에는 본전과 부속전각을 갖춘 대규모의 사당이었다. 한때 다른 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전용됐으나 근대부터 요메이덴이라는 이름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요메이 일왕을 기리는 사당이 시텐노지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텐노지의 총무부장 요시다 메이료 스님은 "쇼토쿠 태자가 16세 때 부친의 병이 낫길 바라며, 가사를 수하고 향로를 들고서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또 이때의 모습을 묘사한 효양상(孝養像)이 중세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9.5㎡의 부지에 기반축대를 포함해 높이 4.5m의 작은 규모로 복원된 요메이덴은 중세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중요한 전각중 하나다. 시텐노지 측은 "이번 요메이덴의 복원은 쇼토쿠 태자 서거 1400주년을 기념하는 관련행사의 하나"라고 발표했다.

사찰 측은 "쇼토쿠 태자 효양상의 근간이 되는 요메이덴이 복원됨에 따라, 사중대은중 하나인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미담이 포교의 일환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신년예불 나타난 '귀여운 훼방꾼'

태국스님들 의식에 길고양이 나타나 애정 공세

태국 한 사찰의 신년예불에 나타난 귀여운 훼방꾼이 화제다. 한 길고양이가 사찰에 들어와 의식(儀式) 중인 스님의 무릎에 올라가 몸을 부비며 예불을 방해한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Dailymail) 등 외신은 1월 3일(현지시간) "고양이가 신년예불을 드리는 스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루앙 피 콤크릿 태차초토(Luang Pi Komkrit Taechachoto·25) 스님은 구랍 31일 자정 전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되는 신년예불 중이었다. 그런데 갈색의 길고양이가 나타나 스님 무릎에 오르면서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스님은 옆에 앉은 스승의 눈치를 보며 눈을 감은 채 고양이를 밀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해서 머리를 부비며 애교를 부렸고, 스님은 결국 쓰다듬으며 무릎을 내어줬다.



신년예불 중인 태국 스님의 무릎에 올라가 애교를 부리는 길고양이.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신년예불에 참석했던 한 불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공개된 해당 영상은 조회수 약 30만회를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됐다. 태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귀여운 해프닝을 조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마저 뒤덮은 '호주 산불'

호주서 가장 오래된 사원 법당은 소실돼

박정현 객원기자

지난해 9월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5개월째 진행되면서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 가운데, 이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달 초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다른 사원들의 피해 사례도 속속 확인된다. 현재 호주 산불은 서울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토지를 태워 최악의 재난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1월 6일(현지시간) "맹렬한 산불로 인해 호주의 여러 불교 사찰이 대피했다"며 선타람(Sunntaram) 숲 사원, 산티(Santi)숲 사원, 베자살라(Vejjasala) 영성 수련소 등의 피해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길로 인해 각 사원의 모든 스님들과 종무원들, 동물들까지 대피한 상황이다.

선타람숲 사원 승려들은 2019년 마지막 날인 구랍 31일 고양이 · 공작새 등 경

지난해 9월 시작된 대형 산불
전국적으로 번지며 피해 입어
스님 · 종무원 화마에 대피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써 '귀감'

내 동물들과 함께 대피했다. 그들은 대피 후에도 화재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을 위해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대피 이후인 지난 6일 현장을 방문한 봉사자 킴 맥스위니(Kim McSweeney)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선타람숲 사원과 산티숲 사원은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베자살라 영성 수련소는 다리와 건물 1동이 불에 탔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 부다 담마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이에 앞서 지난달 초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인 왓 부다 담마(Wat Buddha Dhamma)가 산불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사원의 법당 1채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원 인근 전역에 퍼지고 있는 산불로 인해 다른 법당 역시 소실 직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사원 인근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왓 부다 담마는 저명한 아야 케마(Ayya Khema, 1923~1997)가 1978년 다룩국립공원(Dharug National Park)에 세운 사찰이다. 프라 칸티팔로(Phra Khantipalo)가 최초의 주지 스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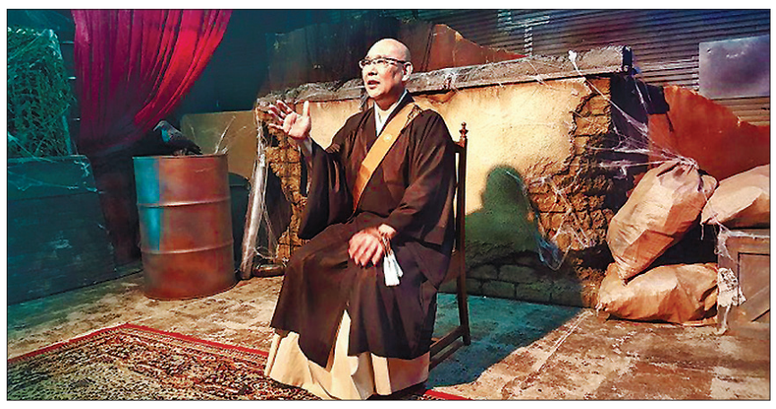
스님이 들려주는 괴담설법 뜬다

'괴담화상' 미키 다이운 스님
독특한 방법으로 佛法 알려
공연 · 출판, 대중 인기 높아

무더운 여름에 인기를 끄는 괴담,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괴담을 하는 스님이 있다. 심지어 괴담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까지 한다. 구랍 20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매그 투 뉴스'는 괴담으로 유명한 '괴담화상', 미키 다이운(47) 스님을 집중 보도했다.

다이운 스님은 교토에 소재한 유서 깊은 일련종의 고찰 '렌큐지(蓮久寺)'의 주지. 스님이 괴담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10여 년 전 어느 여름날 밤, 길을 지나고 있던 스님은 공원에 폭주족들이 입고 있는 옷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글이 쓰인 것을 보곤 무심코 말을 건 것이 괴담을 하게 된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이운 스님은 "겁도 없이 폭주족들이 모여 있는데 옷에 쓰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말을 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폭주족들은 스님이 훈계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험악한 분위기로 대응했다. 스님은 "왠지 모르게 '이대로 물러서선 안 된다' 고 생각했다. 무심코 '스님이 이야기하는 괴담을 들어보겠느냐'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극장에서 괴담으로 설법하는 다이운 스님. 사진출처=매그 투 뉴스

스님은 "아무래도 절집에 있다 보니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이야기들이 많다"면서 자신의 괴담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스님은 "괴담을 들은 폭주족들은 태연한 척했지만, 무거운 분위기에서도 무서워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중 한 사람이 괴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질문했다. 그때 '괴담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울리는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괴담설법 최초의 청자들은 폭주족들"이라며 웃어보였다.

다이운 스님은 그날 밤부터 매일 괴담을 공원에서 이야기했다. '스님이 공원에서 괴담을 들려준다'는 소문이 인터넷과 뉴스 등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 점차로 괴담설법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졌다. 스님은 자신의 괴담설법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알고 싶어 TV 방송에서 진행하는 '괴담 그랑프리 대회'에 응모했다. 결과는 2위, 방송을 본 출판사로부터 '괴담과 설법을 합친 책을 출판하자'는 제안에 〈괴담화상의 교토괴기담〉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책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어 4쇄까지 출판, 속편까지 출간됐다.

한편 "사람을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할 출가자가 혹세무민을 솔선한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다이운 스님도 "괴담 그랑프리에 나온 다음날 하루 종일 불교계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괴담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다"며 처음 괴담설법을 들었던 폭주족들에게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자 그들은 "괴담을 통해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다. 부디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며 스님을 만류했다.

스님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담설법을 이어나갔다. 현재 다이운 스님은 일본 전국의 사찰뿐만 아니라 공연장을 빌려 괴담설법을 진행하고 있다. 스님의 괴담설법은 공지되는 순간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예약이 힘든 법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스님은 괴담설법이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로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후회와 원망을 남긴 사람들의 배경도 확실히 말하지 않고선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점이 대중이 찾아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힘닿는 대로 괴담설법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2020 謹賀新年 경자년

우보트레이딩

대표 이 한 용

NAVER 우보익생 을 검색해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49 (마두동) 강촌프라자 201호 TEL. 031-427-1274

韓불교학 위상 높일 국제대회 '눈길'

불교학술단체들 2020년 주요 일정은

세계불교학회 · 불교논리학회 대형 국제학술대회 잇달아
초기불교 붐 · 종교간 대화 등 주제 학술대회들 개최 예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02년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의 모습. 올해 8월에는 서울대에서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세계불교학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주요 불교학 단체들도 새해를 맞아 한해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세계불교학회 등 국제학술대회들은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높일 대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의 학술대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운영하고 있는 학술상들을 차질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7일에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성운학술상 시상식과 '자유주제'의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허강설전집' 발간 사업의 첫 결과물도 나온다. '탄허강설전집' 발간 사업은 탄허 스님의 강의와 법문 녹음파일들을 녹취 · 윤문해 책으로 펴내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에 대한 첫 책이 올해 초 발간되며, 오는 5월 30일 관련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암 · 탄허학술상 시상식은 11월 20일에 열린다. 짝수해인 올해에는 한암학술상이 시상된다.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의 후임 인선은 3월 27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이후 진행될 총회서 이뤄질 예정이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예고했다.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5월 중 '가족 · 커뮤니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6월에는 '종단 개혁에서 발생한 상처와 치유방안'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연다. 또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불교계에서 두드러진 '초기불교 붐 현상'을 학술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연례행사인 신진학자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하는 논문발표회(3 · 9월)와 지역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문학 강좌(4 · 10월)도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인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1세기불교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될 법인은 △무진국제학술상 집행 △학술단체 지원 △대중강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해 불교학계의 최대 이벤트는 8월에 집중돼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7년 서울대가 한국 최초로 유치한 세계불교학회(IABS) 학술대회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 학술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는 8월 16부터 21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리는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참석하며, 전통 불교학(문헌학)부터 명상 · 사회문제 · 윤리학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참여하는 주요 해외 학자로는 폴 해리슨(스탠포드), 재클린 스톤(프린스턴), 제임스 롭슨 · 김진아(하버드), 아키라 사이토(도쿄대), 하루나가 아이작슨(함부르크대), 로타르 레데로제(하이델베르크대) 등이다.

동국대가 주최하는 국제불교인식논리학회 제6회 학술대회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신라스테이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세계 20개국 50여 명의 발표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대소승 학파의 교설과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 인접 종교철학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불교계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도 다양한 특집과 학술행사를 준비 중이다.

만해축전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을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회 갈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여름 특집으로는 한국사회 내 종교 간 대화를 다룰 계획이다.

동국대-상해중의약대 교류협정 체결

1월 6일 체결식… 교육 · 연구 교류 추진

동국대와 중국 상해중의약대학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1월 6일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 및 연구영역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교류 분야는 △학부생 및 연구생 교류 △교원 및 연구원 교류 △학술자료, 출판물 및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동국대 측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 학장, 박기련 법인 사무처장, 임중연 국제처장, 이형열 일산병원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상해중의약대학교 측에서는 서건광 총장, 정림윤 국제교류처장, 유화 병원관리처장, 서홍매 발전기획처장, 서정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상해중의약대학은 1956년에 중국 최초로 설립된 중의약대학이다. 재학생수 8,000여명, 교직원수 1,300여명이며 8개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1월 6일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 및 연구영역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실담범자와 한국문화 관계 논한다

동국대 ABC사업단, 이태승 교수 초청 특강

1월 16일 충무로 영상센터서

한국불교 의례서에서 실담범자(悉曇梵字)는 다수 수록된 불교 의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실담범자는 불교 의례의 한 축을 차지할 뿐 아니라 각종 불교 경전과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법 속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원형으로서 중대한 의미망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실담범자의 용례를 살피고 한국문화와의 관계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이 주관하는 특강이 오는 1월 16일 오후 4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27호에서 개최된다.

'실담(悉曇)자와 한국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ABC사업단 특강의 강사로는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태승 교수는 실담범자 연구에 대한 선구자로 〈실담범자입문〉을 공저하기도 했다.

한자와 조선시대 한글이 불경언어로 해석되고 이해되는데 반해, 실담범자는 그 자형(字形)과 발음의 생소함으로 인해 제대로 필사되지도 읽히지도 못하고 있다.

의례서뿐만 아니라 고려대장경, 일반 불교 고서, 불복장, 불화, 와당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폰트가 개발되지 않아 의례서 전산화시 실담범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동국대 ABC사업단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불교 의례서를 편찬해 아카이브에 탑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에 실담범자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면서 "해당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신 이태승 교수를 초청해 실담범자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한국적 전승에 대한 연구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특강은 장차 불교학술원에서 모색 중인 실담범자 폰트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대승기신론소 · 별기' 출간 기념 학술대회

울산대 원효학硏, 1월 18일

원효 스님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연구하기 위한 '원효학' 전문 연구소인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가 〈대승기신론소 · 별기〉의 출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소장 박태원)는 1월 18일 오후 2시 울산대 인문대 14호관 1층 218 계단강의실에서 '대승기신론소 · 별기 출간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서는 △박태원 소장의 '이해와 마음- 원효와 붓다의 대화(1)' △정목 스님(양산 정토원)의 '원효의 깨달음과 환속'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의 '대승기신론을 읽어온 문헌학과 교학의 시선들'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산문화재 범위 · 기준 확대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공포

미술 · 전적 분야로 확대해
부문별 해당 기준 마련도

불명확했던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가 확대되고 분야별 기준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 동산문화재의 해당 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 조각 ·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그로 인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 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 · 명확성 ·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으로 구성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20 謹賀新年 경자년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 기업부설연구소

대표 변 융 태 공학박사 | 기술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전화 : 8017-1010 | 팩스 : 8017-1011

역사 부침 속 떠돈 흥천사 세 동종



이상근의
聖寶流轉

① 흥천사 동종, 어디로 갔을까

조선 초기 사대문 세 사찰

절은 이름만으로 내력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흥(興)' 이나 '봉(奉)' 이 들어간 사찰은 대부분 왕실과 관련이 있다. 조선 초 사대문 안에 있었던 세 개의 사찰 이름은 모두 흥(興) 자를 첫 글자로 사용했다.

물론 나중에 원각사가 된 흥복사(興福寺)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사찰이었지만 조선 개국 후 최초로 사대문 안에 지어진 흥천사(興天寺)는 조선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덕왕후의 능 옆에 세워진 능침사(陵寢寺)였고, 지금의 혜화동 자락에 있던 흥덕사(興德寺)는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이 된 뒤 자신의 사가를 사찰로 만든 경우다.

태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세조에 의해 중창되었던 조선 초 사대문 안 3대 사찰은 때로는 호불(세종, 세조) 왕들에 의해 때로는 선왕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이유(문종, 예종, 성종)로 번창하거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산군 때 세 사찰 모두 사달이 나고 만다. 1년 사이 화재로 모두 소실된 것이다. 화재 당시에는 특이한 기록이 없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종실록〉에 사실 고백이 있다. 흥천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사리각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전 유생들의 행패가 드러난 것이다. 흥천사 사리각 방화 조사결과 유생이 불을 지른 것이 밝혀지자 중종이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다. 하지만 신하들이 발 벗고 나서 유생들의 구명에 나선다. 이때 중종이 '폐조(연산군) 때 흥천사와 원각사에 불을 지르더니 이제 또 반복되었다. 처벌을 면해 줄 수 없다' 며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것이다.

여하튼 조선의 3대 사찰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다. 원각사는 연산군의 유흥을 위해 흥청으로 변했고, 흥복사는 조선 중기 이후 세도가(송시열 등)의 사저로, 흥천사는 월산대군 일가의 집터 자리로 변했다.

숭유억불 시대, 흥천사의 고난

이중에 실록에 그 기록이 다시 등장한 건 흥천사다.

흥천사는 조선의 첫 번째 왕비 신덕왕후의 능 옆에 있던 사찰이다. 신덕왕후 강 씨는 비록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지만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 씨가 조선 건국 전에 사망하자 조선의 첫 번째 왕비에 오른다. 물론 살아 있었어도 이런 사실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신덕왕후 강 씨는 정도전, 이방원과 함께 조선 건국의 3대 조력자로 일컬어질 만큼 안팎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몽주를 때려죽인 이방원을 앞에 두고 이성계가 노발대발하자 이방원이 강 씨를 보며 "어머니는 왜 모른 척 가만히만 계십니까"라고 큰소리 쳤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몽주 타살 배후에 강 씨도 있었다는 방증이다.

정릉은 현재 덕수궁과 담을 맞대고 있는 영국대사관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어 능의 동쪽에 능을 관리할 사찰을 세우게 지시하니 바로 흥천사다. 옛 흥천사 터는 현재 덕수궁과 조선일보 사옥 사이에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자리로 추정하고 있다. 정릉과 흥천사의 거리는 거리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흥천사 일주문을 나서면 바로 정릉이었을 것이다.

기록에 흥천사의 규모는 건물만 170여 칸이었다고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규모 정도의 건물이

신덕왕후 능침사찰이던 흥천사
연산군 · 중종代 화마로 사라져
사찰 전소되며 동종 역시 수난

'동대문 등 거쳐 덕수궁 안착'은
동종이 하나라는 착각서 비롯돼
본래 동종은 3개… 첫 동종 묘연
박물관 야외전시장 · 수장고 아닌
본래 자리인 흥천사로 돌아와야



흥천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 1854년(철종 4)에 세워졌다. 문창살의 포도와 다람쥐 문양 등은 당시 사찰 건축의 유행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보물 제2호 보신각종. 1468년 혹은 1469년 주조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개에서조차 원각사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은 흥천사에 걸려 있던 것을 원각사로 옮긴 것이다.



흥천사명 동종. 1462년 주조된 것이다. 지난해 3월까지 덕수궁에 있었으나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다.

10채도 넘었다는 말이다. 여하튼 한동안, 그러니까 태조가 물러나고 정종이 형식적인 왕위에 오르기까지 흥천사는 능침사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차, 2차 왕자의 난으로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이자 세자였던 방석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두 죽자 정릉도 멀리 옮겨지게 된다.

그렇다면 능침사였던 흥천사는 어찌 되었을까? 정릉이 옮겨졌지만 흥천사는 한동안 원래 자리에서 사찰의 기능을 계속했다. 중국의 사신들은 사행길에 늘 흥천사 방문을 원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연산군 때 큰 화마를 맞았고 중종 때 사리각마저 불타면서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사대부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라' 는 명령에 따라 잠시 역사에서 사라진다.

흥천사가 다시 역사의 기록에 들어갈 준비를 한 건 선조 2년(1569년)이다. 중종 7년(1512년)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이었다. 신덕왕후 강 씨 가문 사람이 선조의 행차를 가로막고 정릉의 누차함을 호소하자 왕실에 다시 정릉의 위치가 알려진 것이다. 이후 지난한 논의 끝에 현종 대에 와서 신덕왕후의 종묘 배향이 결정이 되고 정릉이 복구된다. 지금의 성북구 정릉이다. 당연히 능침사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정릉 옆에는 신흥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다. 현종 10년(1669년) 능이 절과 너무 가깝다는 건의가 있었고 합취정(合翠亭) 옛터로 절을 옮겨짓게 한다. 이후 절의 이름은 한동안 신흥사였다.

현재 흥천사 자리로 또 절이 옮겨진 건 정조 임금 대다. 성민(聖敏) 스님과 경신(敬信) 스님에 의해 현재의 자리로 옮겨진다. 흥천사라는 이름을 되찾은 건 1865년이다. 흥선대원군의 후원으로 대방을 지었고 흥선대원군이 직접 대방의 현판도 썼다.

흥천사 동종은 세 개였다

그런데 실록 등에 나타난 흥천사의 기록 중에 동종의 행방이 흥미롭다.

1504년(연산군 10년) 12월 화재가 나서 절이 불탔고, 1510년(중종5년) 사리각까지 불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을 때 '흥천사의 대종은 동대문(흥인지문)을 거쳐 광화문의 종루로 옮겨졌다가 일제하에는 창경궁으로 옮겨졌었으나 그 후 덕수궁으로 옮겨졌다.' 여기까지가 흔히 흥천사 동종의 행방을 연구한 기록이다. 사찰의 안내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흥천사 동종 중에 한 개의 행방만을 말하고 있다. 실제 흥천사 동종은 세 개였다. 이 세 개의 종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는데 이걸 하나로 착각하면서 실제 종이 행방이 뒤섞여 버렸다.

첫 번째 종에 대한 기록은 세종 7년 4월 19일자 기사에 나온다. "흥천사(興天寺)의 종(鍾)을 옮겨다가 남대문에 달게 하였다"는 것이다. 흔히 흥천사 동종은 세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지만 이미 세종 때 흥천사에 종이 있었으며 그 종을 남대문에 달게 했다는 것이다.(실록에 나온 남대문이 사대문 중의 남대문인지 경복궁의 남대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후 이 종의 행방은 묘연하다.

두 번째 종은 세조 8년(1462년) 주조된 동종이다. 지난 3월까지 덕수궁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 두 번째 종에 대한 기록이 '동대문 · 광화문 · 창경궁 · 덕수궁' 을 유전한 종일 것이다.

하나가 더 있다. 보물 제2호 보신각종이다.(원래 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졌다.) 세조 14년(1468년) 만들어진 이 종은 흔히 원각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흥천사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세종 대에 남대문에 걸렸던 종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지만 덕수궁에 걸려 있던 종과 보신각에 걸려 있던 종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실록에 실려 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18년 기사에 왕이 "흥인문 · 숭례문 안에 둔 두 개의 큰 종을 내수사에 주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나온다. 원래는 종을 녹여 화포를 만들자는 신하의 주장에 명종이 반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신의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 두 개의 종이 원래 원각사와 정릉사에 있었던 유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는 보신각종 하나는 덕수궁에 모셔져 있던 종일 것이다.

조선 초 파란의 역사와 함께 했던 흥천사 그리고 그에 따라 서울 시내 곳곳을 맴돌던 흥천사의 종들은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최초의 흥천사 종)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장(보신각 종)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흥천사명 동종)에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동종이 하나라는 가정을 하고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종의 유전은 이리저리 혼재돼 제대로 기록되고 있지 못하다. 차제에 연구자들이나 사찰에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 더, 덕수궁에서 박물관으로 흥천사명 동종을 옮길 때 한번 정도 사찰 측과 상의는 있었는지 궁금하다. 수장고나 야외박물관에 놓일 거였으면 지금의 흥천사로 돌려주는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나 최근 사찰 불사가 한창이고 또 점점 여법해지는 흥천사를 돌아보며 생긴 아쉬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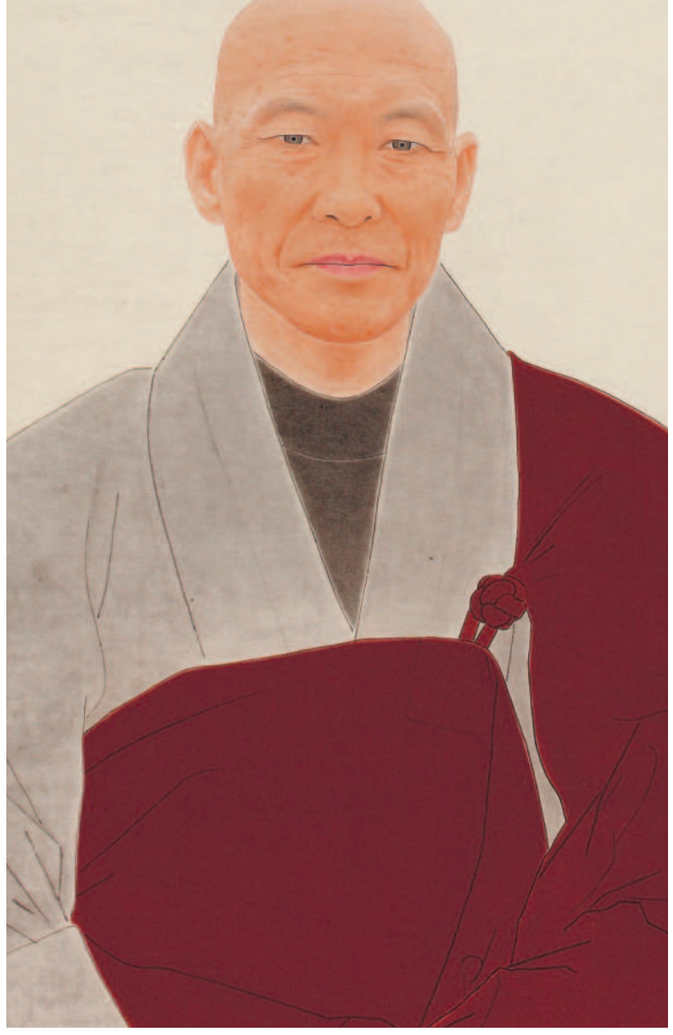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이상근 편집주간은
1997년 〈월간 대중불교〉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1999년부터 약 4년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에서 종무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출판사, 시민단체 등에 근무하다 2009년 불광출판사 입사를 계기로 불교 출판 일을 계속하고 있다. 불교 교리,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세 가지 주제로 주로 출판 기획을 하거나 편집을 한다.

2020 謹賀新年 경자년
풍기정품인삼 풍삼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 휴대폰 : 010-2815-2174

長壽漢醫院印 장수한의원
원장 이영수
▣ 진료과목 : 침구과, 내과·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 특수치료 : 약침요법
▣ 점심시간 : 오후1시~오후2시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7시)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2시)
일요일·공휴일 휴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48번지
(본오동 872-19)한양프라자 사거리(GS25시 건물2층)
TEL. 031)409-0541~2

가진 것에 가짐을 당하다



김호석 화백 作 '법정 스님'.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① 연재를 시작하며

이른 아침, 스승 말씀이 담긴 책들이 꽂힌 책꽂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좁다란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등에 적바림되어있는 '법정잠언집' 이란 글이 눈에 들어온다. 잠언이라고 적힌 글들을 보면 다 좋은 말이던데 잠언이 뭘 가리키는 말일까 싶었다. 찾아보니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르는 말' 또는 일깨우는 말을 가리키는 말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는 말과 다름없다.

잠언이 지닌 뜻을 헤아리고 나서 이 책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펴니 바로 '소유한다는 것은' 이란 꼭지가 드러난다. 사실 나는 스승이 이토록 간추리고 골라준 말씀보다 본디 쓰신 긴 말씀을 더 좋아한다. 거기에는 그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앞뒤 줄기가 고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펼쳐 들지 않는 책인데 이렇게 펴보니 새롭다. 읽어본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의 정신은 그만큼 부자유해지며 타인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 일으킨다.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어느 날인가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갈 우리 처지가 아닌가.

소유한 것을 버리고 모든 속박에서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존재하라.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 버린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무소유' 를 간추린 말씀이다. 본디 이 말씀은 이토록 붙여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글이 이어져야 뜻이 한눈에 들어오기에 이렇게 옮겼다.

'가진 것에 가짐을 당한다' 란 말씀이 머리를 때린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 써야 하기 때문이다. 둘러보니 쓰지 않는 것이 참 많구나 싶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기를 쓰다니…. 특히 돈이 그렇다. 돈은 잘 벼려진 연장이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물건이다. 돈 구실을 바꾸는 데 있다. 그런데 요사이는 바꾸는 구실을 하지 않는 돈들이 사람 목숨을 쥐락펴락한다.

돈을 생각한다. 우리는 돈으로 물건을 산다고만 생각한다. 아니다. 돈도 사야 한다. 돈을 쓰려면 기른 사과나 배, 쌀 따위를 팔아 돈을 사야 한다. 곡식이나 채소를 길러보지 않은 나 같은 도시내기도 제 힘으로 빚은 뭔가를 내다 팔아 돈을 사야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상하수도 쓰는 삯을 치를 수 있다. 힘이 달려 돈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은 어떻게 돈을 살 수 있을까? 타고난 힘이 있는 이들이 산 돈을 나눠야 한다. 거저 나누라는 말이 아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본디 땅에는 임자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땅을 차지하고 앉았으니 그 땅에서 나온 것을 땅을 가지지 못한 이와 나눠야 한다. 기업을 하는 이들은 알게 모르게 자연을 무너뜨리고 더럽히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자연을 더럽힌 사람뿐 아니라 힘이 없어 자연을 더럽히지 않은 다른 이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러니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한다.

1855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현재 워싱턴 주에 해당하는 땅을, 그곳에 살던 인디언 스와미족의 추장 시아틀에게 미국 정부에 팔라고 강요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아틀 추장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늘을, 땅의 체온을 사고팔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낯섭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선한 공기와 물의 거품조차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은 나의 백성들에게는 신성한 것입니다. 저 빛나는 솔잎이며 모래톱이 있는 해변이며 어둠침침한 숲속의 안개며 노래하는 곤충들이 모두 내 백성들의 기억과 경험 안에서 성스럽습니다.

백인들이 우리의 사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조각의 땅은 그 곁에 있는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중에 와서 그 땅으로부터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형제가 아니라 적입니다.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그들은 전진을 계속합니다. 게걸스러운 그들의 식욕으로 그 땅을 먹고 나면 그 뒤에는 오로지 사막만이 남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하나의 조건을 내놓겠습니다. 짐승들이 없는 곳에서 인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커다란 정신적인 외로움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인간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은 여러분과 같은 신입니다. 그의 연민은 백인과 인디언들에게 한결같습니다. 이 땅은 그분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백인들 또한 소멸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 자신의 쓰레기 안에서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의 이 편지는 130여 년 전 그 시절의 미국 대통령만이 아니라, 자연을 말할 수 없이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보내온 묵시록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텅 빈 충만〉 '인간과 자연' 에서 스승이 던진 말씀이다. 북극에 있는 얼음이 무너져 내리고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지구별은 커다랗게 앓는 소리를 내며 죽어가고 있다. "쓰레기더미 안에서 숨이 막힐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다니 끔찍하다.

스승은 사람은 틈날 때마다 누구나 우주가 준 선물을 나누는 관리인일 뿐이라고 말씀했다. 나누라고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걸 넘어서 개발이라는 구실을 붙여 어머니인 땅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며 끊임없이 못 살게 구는 이들이 하도 많다 보니 하신 드잡이다.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지구별에 사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 20%를 샘솟게 하는 '허파' 브라질 아마존 밀림이 거듭 불타고 있다. 아마존에 거듭 불이 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 아마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 때문이 아니다. 기업농들이 나무를 베고 숲을 태우고 나서 불길이 지난 자리에 커다란 풀밭과 콩밭을 만들어 소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이란다. 2019년에 유독 아마존 화재가 많은 까닭은 2019년 1월 정권을 잡은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그 뒤에 금융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데 있다. 브라질원주민협회(APIB) 대표 '소냐 과자자라Sônia Guajajara' 는 '아마존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가장 나쁜 은행 목록' 을 들춰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은행은 블랙락(BlackRock), 뱅가드(Vanguard), JP모건 체이스, 스페인 산탠더(Santander), 프랑스 BNP 파리바스, HSBC은행이다. 이번 화재로 아마존 생태계 20%가 망가졌단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이자 커다란 허파만은 아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출 버팀목 가운데 하나인 아마존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원주민 목숨과 보금자리도 모질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환경 위기와 인권 위기' 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는 얘기다. 영리한 바이러스는 임자몸(숙주)을 죽이지 않는다는데…, 스승 말씀처럼 가진 것에 가짐을 당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알람이 하나 뜬다. "화력발전소 멈추니 당진 배추밭엔 석탄재가 사라졌다"는 기사 알림이다. 충남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빼곡하다. "작년에는요, 석탄재가 배춧속까지 파고 들었잖유. 수도권에 전기 대느라고 여기 당진 사람들이 고생 많았슈." 당진화력발전소를 마주 보며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 센터장이 한 말이다. 당진발전소가 멈춘 것은 지난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12~2월)엔 9기에서 14기, 봄(3월)엔 22~27기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덕분이다. 이 기사를 쓴 24일에는 8기가 멈춰있단다.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하나?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수도권 사람 모두가 이곳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있다는 말씀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다 없어질 때까지 거듭 빚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억지로 떠넘긴 것도 아니고 내라고 하는 돈을 내고 쓰는 것인데 어째서 우리를 나무라느냐고 하실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생각 거리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사서 쓰면서 값을 치르고 있다고 여긴다. 참으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새겨볼 일이다. 잘못된 돈 노름을 멈추라! 그 돈 물꼬를 틀라! 지구 어머니 숨통을 막는 짓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선량한 보통 사람이나 서툴고 여린 사람을 보듬어야 한다. 이 노릇을 새기라는 우레가 바로 '무소유' 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무소유를 가리켜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 만큼은 소유하고 싶다"고 하셨다. 무소유를 소유하다? 본래무일물, '가질 수 없다는 뜻' 을 새기라는 말씀이다.

〈작가〉

변택주 작가는

길상사서 펼쳐진 법정 스님 법석 사회를 12년간 보며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에 들어가 세상과 자연과의 어울림을 배웠다. 법정 스님으로부터 지광(智光)이라는 법명을 받은 그는 '배운 것을 세상에 돌리지 않으면 제구실 하지 않는 것' 이라 한 스님 말씀에 따라 꼬마평화도서관 건립을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다.



(사) 창원 수산자비선원
창건30주년 기념법회 및 천도재 봉행









주지 야천당
수산(법상) 스님

초청합니다

창원자비선원은 30년간 오직 불교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6회에 걸쳐 불교인 단합대회와 16회에 걸쳐 시민화합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창원자비선원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사찰이 되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창원수산자비선원 주지 야천당 수산(법상) 합장

일시
2020월 1월 21일
1부 천 도 재(오전 9시)
2부 기념법회(오전 11시)



법어
태종사 조실
도성 큰스님



법문
세계불교교황
석가산 성하

※ 별도의 초청장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시 도계동 341번지 1호 14통 4반 부민상가 2,3,4층
전화 (055) 227-7626 | H.P 011-558-7626 | E-mail jebs0314@hanmail.net



치매/중풍/노인질환자
자비요양병원
최고의 시설과 진료시스템으로 환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055) 288-6300



명곡한의원
내과/소아과/부인과/침구과
☎ 055) 288-6500



수산자비선원 부설
자 비 마 을
보건복지부 인가 노인장기 요양시설
☎ 055) 237-4564

禪은 선종 산물 아닌 인류 문화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① 선문화란 무엇인가?



그림 · 강병호

먼저 일반적으로 문화란 무엇인가? 자문을 해 보면 인류가 축적한 진선미덕행(眞善美德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선문화는 하나 더 보태서 선경(禪境)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먼저 '문(文)' 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화라는 단어는 고대 중국 언어계통에 이미 존재했던 어휘이다. " '文' 의 본뜻은 갖가지 색상이 이리저리 뒤섞여서 생긴 무늬를 가리킨다"고 했다. 〈역경〉 계사 편에 보면 "물체의 모양이 서로 섞인 것을 고로 가로되 문이라고 한다"고 했고, 〈예기 · 악기〉에서도 "오색으로 문양을 이루었지만 어지럽지 않다"고 했으며, 〈설문해자〉에서도 "문(文)은 그림을 섞은(여러 가지 그림)것으로, 모양이 교차한다"고 했다. 모두 비슷한 의미로서 대동소이하다.

'화(化)' 의 본뜻은 개혁(改易) 생성(生成) 조화(造化)라고 했다. 장자의 〈소요요〉편에서도 말하기를 "북명에 고기한마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곤이다. 곤의 부피가 너무 커서 정말이지 몇 천리에 이르는지 알 수가 없다. 변해서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붕이다"고 했으며, 〈주역〉 계사 편에서도 "남녀 교합으로 만물이 화해서 생한다"고도 했고, '化' 는 사물의 형태 혹은 성질의 변화를 가리키며, 동시에 '化' 는 도(道)교육을 통해서 선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문(文)과 화(化)의 합성어로서 한어 계통에서 문화(文化)의 본뜻은 이문교화(以文教化 · 문으로서 교화한다)로 사람들의 성정을 연마하고 인품과 교양을 도야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신적 영역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천을 거듭했고 공간의 차이를 따라서 또 다른 문화습관을 생산하면서 文化는 점점 풍부한 내용을 내포한 하나의 사상적 개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때문에 문화는 지금도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화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더욱 어렵다. 선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복잡한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리켜서 딱히 '선문화' 라고 할 수는 없다. 그저 모종의 각도와 입장에서 정의할 수 밖에 없다. 또 문화내부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인류가 생존해 오면서 정신적 방면과 물질적 방면 및 기타 생존방식인 생활방식 풍습 습관 등이 누적 되어서 오늘에 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문화의 구성 요소를 해부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즉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문화는 정신문화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인류학자는 문화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다. 하나는 고급문화(High culture)로서 철학, 문학, 예술, 종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로서 관습, 습관, 의식, 및 의식주와 인간관계의 생활방식을 가리키며, 세 번째는 심층문화(Deep culture)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인 미추의 각도 및 생활방식의 가치관이다.

심층문화는 대체적으로 문화 혹은 사회활동 쪽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뿌리는 모두 심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심층문화는 대중문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적 행위와 생활방식의 취향은 곧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적인 주제는 고급문화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비록 종교를 고급문화로 분류하고 있지만 종교의 체험세계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뛰어넘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체험의 세계는 곧 인류의 희로애락의 근원인 마음에 대한 뿌리를 통달하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문화는 선의 체험을 통해서 표현되는 세계라고 하겠다.

禪은 중국선종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다. 선수행은 인도에서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셨고 또한 이 선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다. 이외도 인도의 외도들도 선수행을 통해서 본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도 했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유입되어서 경전 번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면서, 마침내는 교판상석을 통해서 경전의 심천을 가려서 그것을 근거로 각자 학파를 성립하기도 했다. 대체로 위진시대에 반야, 공사상이 유행을 했다면, 남북조시대에는 불성론이 유행을 하였고, 남북조시대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면서 대승선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수당시대에 이러서 8대 종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당나라 중엽에 접어들면서 8대 종파가운데 선종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불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유행하기 시작한 선종은 비록 풍파를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선이 처음부터 중국에서 유행을 했던 것은 아니다.

선문화, 禪境의 현실적 표현
달마 중국 오면서 대승선 태동
수당시대 8대종파 中 선종 유행
시대마다 새로운 수행법 창시

중국선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각 시대마다 새로운 수행법을 창시하기도 했다. 물론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다. 달마선 이전에는 인도선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초기선법을 유행을 시켰다. 달마선은 곧 조사선이라는 새로운 수행법을 탄생시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선은 공안선이라는 수행의 방편을 제시했고, 또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공안선에 대한 해석으로 문자선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문자선에 대한 반감으로 간화선이 창시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듯 중국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한 선은 급기야는 선을 빼놓고 중국문화를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송대의 사대부들이 한 축이 되어 이루어낸 독특한 선문화는 이제는 중국문화의 역사이자 자랑거리가 되어있다. 물론 여기서 선사들의 깊은 선경에서 나오는 격식을 뛰어넘은 호방한 행위도 한몫을 하였다.

선(禪)은 넓은 의미에서 일체 불법의 심요(心要)가 되며, 좁은 의미에서 선은 경전 이외의 또 다른 가르침으로 실천을 강조해서 체험을 통해 해탈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명나라 때 4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인 지욱선사는 "선은 불심이고, 교는 불어이고, 율은 불행이다"고 했다. 또 〈능가경찬〉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종을 삼고, 무문으로 법문을 삼는다. 이것을 성취하는 자는 모든 불심이 제일이 된다"고 했다. 〈심부주(心賦注)〉에서 영명연수선사도 "석가출세는 일대사인연과 중생심 가운데 불지견을 열기 위해서이며,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도 오직 이심전심을 위해서다"고 했다. 여기서 마음이란 각자 중생들의 마음이다. 선종의 종지는 오직 자기의 본래마음 즉 본래면목을 깨닫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문구가 있는데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선종은 '불립문자' 를 표방했지만, 사실 선종은 중국불교에서 그 어느 종파보다 많은 전적을 남겼다. 〈단경〉에서 "직도(直道)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곧 이 양자(兩字)를 세우지 않는데 또한 이 文字이다"고 했다. 이 뜻은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의 강력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전의 문자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은 잊어야(因指見月, 得月亡指)하는 것이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당도했을 때는 중국불교 불교교리가 매우 성행할 때였다. 교리에 너무 집착하고 실천수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책적인 의미일수도 있다. 위진시기는 경전 강설이 유행을 한 시기로 이론적인 면은 풍부한데 실천면에서 약했다. 또 선종에서 정통성을 말할 때 쓰는 핵심 언어 중에는 "나에게 정법안장이 있으니 열반묘심으로 실상무상 미묘법문이다. 불립문자 교외별전으로 마하가섭에게 부촉한다"고 했는데, 혹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선종의 기원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사실 '오유정법안장, 열반묘심(吾有正法眼藏, 涅槃妙心)' 등의 구절은 모두 송대 이후 전적에 나타나고 있다. 또 '영산회상 염회시중' 을 인도선의 기원으로 중국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역시 경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중국 스님들이 저술한 전적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의 사례들은 모두 중국에서 선이 유행을 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어구들이다.

선(禪)이란 무엇인가? 선은 본인의 체험의 경계(境界)이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셨을 때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알 수 있듯이(如人飮水, 冷暖自知) 자기 체험이 중요하다. 즉 수용(自受用)의 경계로서 자신이 느끼는 경계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고 감각적인 경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법성게에서도 말했듯이 증득한 자만이 아는 경계이고 체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경계이다. 그 깨달음의 경지는 현실을 떠나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은 직관력을 중시하며 직하에 알아차릴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선은 일종의 생활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을 초월한 자유자재한 삶의 태도는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특히 선종에서 강조하는 뛰어난 직관력은 선경의 아주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게 하며, 그 지혜의 힘은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한다. 선문화는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중국역사에서 선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마디로 선문화는 불변하는 불성청정 자성청정의 진의를 깨달았을 때 각자의 경계에 차이점이 존재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때문에 선사들은 이러한 각자의 깨달음의 세계를 때로는 게송으로, 그림으로, 사상으로 행위로서 표현한 다양한 세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표현된 세계가 곧 선문화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강사〉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개강 2020년 1월 6일(화) 오후2시~4시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독재 딛고 도약한 '황금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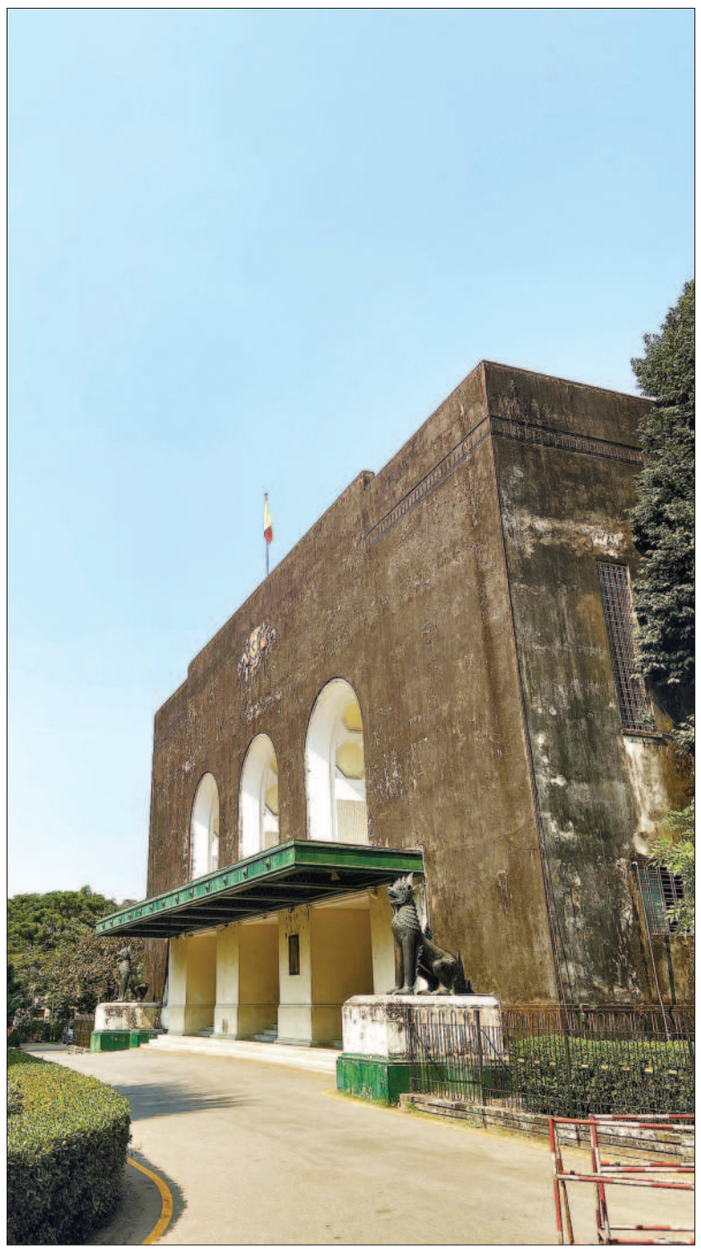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① 연재를 시작하며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를 통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파고다의 전설과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의 미얀마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읽기 쉽게 전한다. 필자는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시절 받은 장학금에 대한 작은 회향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한국에 더 이상 미얀마가 '과거에 멈춰진 불교의 나라'가 아닌, '미래의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황금의 나라 미얀마'로 다가가기를 기원했다. 〈편집자 주〉



15세기 건립된 불교사원 쉐다곤 파고다. 미얀마를 상징하는 대표 성지다.



양곤대학교의 'Convocation hall'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장소로 유명하다.

익숙하지만 부족한 정보

미얀마(Myanmar)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화운동' '아웅산 수찌' '불교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불자들에게는 '위빠사나 명상'으로 유명한 나라다. 2015년 25년 만에 이루어진 자유총선으로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現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교부장관)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USDP(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를 압승하면서 반세기만에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군부독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외국인에게 굉장히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국내에는 미얀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위빠사나 명상을 다녀온 분들의 정보와 수행일기는 있었지만 그 외에 미얀마에 유학,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떤 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다. 2015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에는 미얀마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정보가 많지 않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에 버마(Burma)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다. '미얀마'라는 명칭은 1989년에 군부정권에 의해 바뀌었다. 미얀마는 '미얀(Myan, 빠르다), 마(Mar, 강하다)'라는 뜻으로 빠르고 강하다는 뜻이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얀마는 예전의 버마라는 명칭 대신 미얀마라는 국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13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있지만 '미얀마'라는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어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다. 쌀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을 갖고 있어서 쌀의 품질과 생산량이 높았지만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네윈(Ne Win)은 폐쇄 경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쌀 가격을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품질이 하락하고, 국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미얀마의 쌀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에 5만 달러에 달하는 쌀을 보내주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만나 "한국전쟁 당시 미얀마가 지원한 5만 달러 규모의 쌀은 전쟁으로 고통 받던 한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다. 한국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딴요진(미얀마에서 '정情'을 뜻하는 말)으로 보답하려고 한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미얀마는 한국과 6.25 전쟁의 과거 인연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높은 교육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오랜 전통을 가진 불교 역사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 특히 미얀마는 한국과 같이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다. 미얀마는 군부독재시절 학교가 거의 폐쇄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맹률이 낮다. 이러한 현상에는 미얀마 스님들의 역할이 크다. 절의 교육기관(Dhamma School)을 만들어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미얀마 언어를 가르쳤다.

135개 소수민족 뭉친 자부심 아래
군부정권 이어 민주주의 꽃 피워
미얀마 언어 스님들이 가르치면서
문맹 퇴치 나서… 불교는 삶이다

韓 최초의 박사과정 유학

1950년대 초반만 해도 아시아권에서 양곤대학교(University of Yangon)는 굉장히 유명했고, 아시아의 인재들이 유학하고 싶은 학교 중의 하나였다. 고등학생 때부터 미얀마의 관심을 갖고 유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양곤대학교는 꿈의 학교였다. 민주화가 되기만을 꿈꾸었고 미얀마 사람들과 같이 열망했다. 2015년 마침내 미얀마는 총선거를 통해 군부정권에서 민주화정권으로 변화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곤대학교 입학준비를 시작하면서 미얀마 유학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얀마 유학준비는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아무도 양곤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아예 없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미얀마는 아직도 외국인을 학생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무서운 소식만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학교에 전화를 걸면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양곤대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어 미얀마 양곤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오리엔탈학과를 찾아갔다. 학과에 찾아가고 나니 한국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보통 한국 대학교에서는 교수를 비롯하여 조교들에게 개인 컴퓨터가 제공되고, 학교에 인터넷이 안 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미얀마에는 각 과의 공용 컴퓨터만 있었고 인터넷도 한국처럼 갖춰져 있지 않았다.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한국 대학교에는 모든 과와 강당과 강의실에 에어컨이 똑같이 설치되어 있지만 미얀마에는 각 과의 학장 교수실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여름에 체감온도 40도가 웃도는 미얀마에서 지난 1년 동안 수업을 들을 때 에어컨이 없어 이마와 엉덩이에 땀띠가 나는 일도 겪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오리엔탈학과 학장 교수님과 입학허가를 묻기 위해 입학처를 찾아 간 적이 있는데 서류뭉치가 사무실에 쌓여 있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대학교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서류들이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세히 행정시스템을 살펴보니 아직도 모든 것을 수기로 입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얀마 정부부처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끝날 일이 미얀마에서는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거쳐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도 2018년도이 되어서야 새로 리뉴얼 되었다. 민주화된 지 약 2년이 지난 2017년도의 미얀마의 환경을 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던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부끄러웠다. 17살 때부터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10여 년 넘게 민주화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얀마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오만함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다. 오만함을 깨고 자각하기 위해서는 유학하는 5년 동안 미얀마 사람들과 직접 부딪치면서 삶 속에서 미얀마 문화를 최대한 느껴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출신으로 미얀마에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불교 배우러 미얀마에 간 거예요?" "불교로 밥 먹기 살기 힘들 텐데요?" "미얀마 가지 말고 옆에 베트남, 태국이나 가지 그런 데를 왜 간 거예요?"라며 걱정하는 마음과 무시하는 마음을 섞어서 간간히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불교는 제 삶 자체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불교가 삶 자체이지요. 미얀마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불교를 모르고 역사와 문화,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불가능하죠. 그리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웃음으로 받아치며 마음속으로 스스로 가는 길에 대한 원력(願力)을 다진다. 〈양곤대 박사과정〉

제18회 한불련 포교사고시 합격자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1일 시행한 제18회 한불련 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의 필기 및 면접 최종 합격자를 공고함.

포교사 고시 합격자

▶ 수석 : 김진영 ▶ 차석 : 이강수

강한구 곽선민 권용주 김금란 김영희 김진영 김찬순 김채원 김흥재 김희숙 박표준 배재환 서은선 성효진 송문영 안재두 오흥석 이강수 이채윤 정희자 주영훈 최호정 황성호 황순옥 황용준

포교사 품수식 안내

■ 등록기일 : 2020년 2월 7일 까지 ■ 품수식 : 2020년 3월 15일 오전 10시30 ~ 오후 4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 문 의 : ☎ 02-734-9595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대중교화에 앞장서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와 함께할 불교대학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지역별 대표

서울 동산불교대학 (02-732-1206)
인천 새세계불교대학 (032-426-8435)
충북 영동생활불교교육대학 (043-745-9088)
대구 보림사불교대학 (053-583-8001)
대전 보현불교대학 (042-624-6555)
천안 한국불교교육대학 (041-557-3223)
경북 경북불교대학 (054-632-8226)
부산 무량불교아카데미 (051-503-1107)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회장 석인경

제11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 6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1년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개인지도,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무파사 불교대학원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사진 ……3매
→ 개강일시 : 2020년 3월 7일(토) 오후2시
→ 수 업 : 매주 월요일 2시 ~ 5시
→ 주 소 : 대구시 동구 팔공로 73-7
→ 신청문의 :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불교대학원(학장)

생각이 끊어질 때 禪에 든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② 일 없는 사람(無事人)

〈임제록〉에서 내세우는 말 중에서 '일 없는 사람(無事人)' 은 모든 생각이 끊어진 사람이다.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해 마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임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일 없는 사람' 이 되라고 한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서 천하를 다니되 도깨비 귀신에게 홀리지 말아야 한다. 일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조작하지 말라. 오직 평소의 생활 그대로 하라. 그대들이 밖을 향하고 딴 집을 찾아다니면서 수단을 부려봐야 그르칠 뿐이다. 부처를 구하려 하나 부처는 이름뿐이며 말일 뿐이다."

또 유명한 〈임제어록〉의 명언인 '어디서든지 주인이 되라.' 는 법문이 설해진 대목이 있다.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은 모두 다 참된 곳이다."

이 말의 뜻을 음미해 보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참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라는 것이다. 또, 경계에 말려들지 말라는 당부의 말도 이어져 나온다.

"어떤 경계에 부딪쳐도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설사 묵은 습기와 무간지옥에 들어갈 5가지 죄업이 있다 하여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마음의 본체를 설명하는 법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마음의 작용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고, 발에 있을 때는 걸어 다닌다. 본래 이 하나의 정밀하고 밝은 것(一精明心)이 나누어져 우리 몸의 6가지 부분과 합해졌을 뿐이다. 한 마음마저 없는 줄 알면 어디서든지 해탈이다."

'감변(勘辨)' 장에는 선문답을 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감변이란 서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불법에 대한 안목을 점검 확인한다는 뜻이다.

임제 스님의 스승인 황벽 스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반두(飯頭 · 밥을 짓는 소임)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 하는가?"

"대중들의 밥을 지을 쌀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두 섬 다섯 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적을까 걱정입니다."

이때 황벽이 주장자로 내리쳤다.

쌀 고르던 스님이 이 이야기를 임제 스님에게 했다.

임제는 "내가 저 노화상을 점검해 봐야겠어."

마침 임제 스님이 황벽 스님 곁에 갔을 때 황벽 스님이 이 이야기를 또 임제에게 말했다. 임제 스님이 듣고 "반두는 불법을 모르는군요. 스님께서 그가 깨닫도록 꼭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제가 물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왜 내일 다시 한 번 더 먹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임제가 말했다. "내일을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당장 먹어야지요." 하고는 손뼉을 쳤다.

황벽 스님이 말했다. "이런 미친놈이 또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임제 스님이 바로 할을 하고 나갔다.

임제 스님이 어느 날 보화(普化)스님과 함께 어느 신도 집에 가 점심 공양을 함께 하게 되었다. 임제 스님이 물었다.

"한 터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에 수미산을 거두어들인다고 한 것은 신통묘용인가 아니면 본래 그러한 것인가?"

그러자 보화 스님이 밥상을 걷어찼다.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임제의 말에 보화가 "이곳이 어떤 곳인데 거칠다 말다 하는가?" 하였다.

선(禪)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상식은 생각이 따라갈 수가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은 격외도리(格外道理)는 생각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끊어질 때 선(禪)에 들어간다고 한다.

〈조계종 고시원장〉

'아미타불'은 無量光佛 · 無量壽佛



세상 속 경전읽기

② 서방극락교주 아미타불

볼테르(Voltaire)가 1752년에 발표한 독창적인 공상과학 단편소설 〈미크로메가스(Micromégas)〉는, 별 시리우스(Sirius)의 한 위성에 사는 청년 미크로메가스가 주인공이다. 그가 쓴 과학논문이 이단으로 몰려 재판에서 800년 추방형을 받자, 그는 견문도 넓힐 겸 우주여행에 나선다. 미크로메가스를 번역하자면 '미세거대(微細巨大)' 로 키가 37Km이고, 그가 살던 행성은 지구 둘레의 약 22백만 배 크기이다. 그곳 사람들의 수명은 1050만년이다.

그는 성간(星間) 여행 중에 토성에 도착하여 토성 학술원 총무와 친구가 된다. 그는 토성 친구와 함께 지구로 여행하기로 한다. 지구에 도착해서 확대경을 통해 바다의 배를 발견하고 집어보니 배안에 극소한 인간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은 지구에서 만난 극소한 존재가 지성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깎은 손톱으로 만든 특수 소리확대 대롱을 통해서 지구인들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빠르게 지구언어를 습득하자, 두 외계인은 인간들과 대화를 해보고 지구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지성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우주가 오로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듣게 되자, 자지러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아는 체 하는 인간에 화가 난 미크로메가스가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는 책을 써서 인간에게 전해주었고, 이 책을 파리의 과학학술원에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 백지 뿐이었다.

광대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지구, 거기에 의탁한 인간이 미세하고 하잘 것 없는 것을 잘 나타낸 단편이다.

〈관무량수경〉에 아미타불의 키는 육십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다. 1유순은 황제가 마차로 하루 동안 행차하는 거리로 30~40리(12~16Km)이고, 나유타는 1011 또는 1012 이다. 지구의 바다에 들어가도 바닷물이 발목밖에 안차는 거대한 미크로메가스도, 아미타불의 키에 비하면 미생물 크기도 안 된다.

〈무량수경〉에 보면,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께서 210억 불국토를 법장비구(法藏比丘)에게 모두 나타내 보여주신다[悉現與之]. 요즈음으로 치면 홀로그램이나 빔 프로젝터 영상으로 보여주신 셈이다. 법장비구는 장차 건설할 극락세계를 위해 5겁(劫)동안 210억 불국토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좋은 점만을 골라 설계를 마친다. 그 후 세자재왕불 앞에서 48대원(大願)을 세우고 수행에 돌입한다. 조재영겁(兆載永劫)의 수행을 한 결과 10겁 전에 성불해서 극락정토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서방극락세계는 욕계 · 색계 · 무색계의 삼계(三界)를 뛰어넘은 정정취(正定聚)의 세계이다.

법장비구의 별원(別願)인 48대원(大願)은 모든 불보살의 총원(總願)인 사홍서원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삼세 모든 부처님의 서원인 동시에 우주 자체에 내재(內在)한 목적 원인이며, 성불을 지향한 중생의 서원이고 이상인 셈이다. 48원 중 제12원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이고, 제13원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겁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이다.

아미타불을 번역하면 무량광불(無量光佛)과 무량수불(無量壽佛)이다. 제12원이 성취된, 한량없는 빛의 무량광불이고, 제13원이 성취된, 한정 없는 수명의 무량수불이다.

제18원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로, 줄여서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이라 한다. 나무아미타불!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이해의 길 28

'業'은 숙명 아닌 자유의지

새해가 되면 어떤 이들은 점집이나 〈토정비결〉 등의 경로를 통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운세를 점치곤 한다. 운세가 좋게 나오면 기쁘지만, 나쁘게 나오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이 일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이는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있다는 숙명론적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연 정해진 운명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각자의 운명이 정해져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검증의 범위를 넘어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업과 윤회가 운명론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은 지적하고 싶다. 업설(業說)은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은 스스로 창조해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다 팔자고 업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의 상황이 정해진 것처럼 여긴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은 불교의 업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

붓다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막칼리 고살라(Makkhali Gosala)라는 인물이 숙명론을 주장하였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육사외도(六師外道) 가운데 사명외도(邪命外道)라고 부른다. 당시 사명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소카 대왕의 비문에 의하면 불교, 자이나교와 함께 독립된 종교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정해진 운명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권하거나 나쁜 일을 금하는 등의 윤리가 이곳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역사는 이들의 교단을 아지비카(Ajivika)라 부른다.

붓다는 모든 것이 정해져있다는 숙명론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사찰에서 점을 치거나 사주를 봐주기도 한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적어도 불교라는 이름을 걸고 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은 주어진 운명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다. 불교는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이를 보여주는 붓다의 대표적인 교설인데, 업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몸과 입, 생각(身口意)으로 수많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로 인한 에너지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저장되었다가 다음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업이라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저장되는 무의식의 공간을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 부른다. 쉽게 말하면 업장(業藏), 즉 업의 저장 창고인 셈이다. 이곳에 저장된 업의 에너지가 우리들 현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술이나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것도 오랫동안 마시고 피웠던 에너지가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저장된 에너지가 금연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금단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랜 흡연으로 인해 받는 업보라 할 것이다.

업보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이나 습관 역시 무의식에 쌓인 업의 흔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흔적으로부터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업에는 두텁고 두터운 습기(習氣)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써온 사투리를 고치는 일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업보라면, 미래의 모습 역시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업이란 숙명이 아니라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금단현상을 극복하고 담배를 끊거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투리 발음을 교정한 사람들이 있다.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창조한 주인공들이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저 삶이라는 영화의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그에 따르는 결과도 마땅히 책임지는 것, 업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러한 주인공의 삶에 숙명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6호 | 17 | 전면광고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나니, 이것이 바로 즐거움 가운데서도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부산 도심 사찰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분 도심포교 할수 있는 분 모십니다

010-3885-8989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정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5계를 철저히 지키는(채식, 금주, 금연) 조계종 소속의 독신 포교사로서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불교수련원, 불교요양원 건립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대여) 선우를 찾습니다.
(무상보시는 원치않습니다.)

해월산 在禪 합장
010-7572-53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인연을 찾습니다

작은(기도터)비구니스님 무속보살님경남최고명산

- 37세(여) 경찰공무원
- 57세(여) 전문대졸

결혼할남성

010-3257-5182

?

특수한 기도비법을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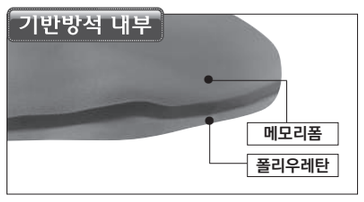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 010-3747-8692

세계최초 기반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불자정보

1276호 | 18 | 전면광고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아함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북구 재래시장 근처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 60평 냉온난방, 보안, 주차시설
- 포교원을 운영하실 스님 연락 주세요!
- 월세 30만/관리비 10만

010-4535-256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급)다용도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 대지173평, 임야(밭)39평
- 건축 : 1층식당 7평(32평6홉) 방5개, 거실1, 실내화장실3개, 실외2개, 2층다용도(삼존불)외 논17평5홉
- 상수도, 용천수, 산천수(풍족)
- 가액 : 2억9천만원(절충가능)
- 농협은행 1억7천만원 담보대출

010-9612-1022

토굴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3층건물중 3층(약70평)
- 삼존불, 원불280불, 산신각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 협의후 결정

010-2125-4684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부자가치 35억 상당(신도시개발로 땅값상승함) ● 가액 : 13억(대출금5억포함) ● 계약시 3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잔금 5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30%진행중 ● 대형버스 진입 공사 2차선 연결중

010-9647-0723

도심 속 사찰명당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지 : 262평
- 건물(판넬주택) 50평, 거실, 주방, 방2, 화장실, 조경, 주차시설완비
- 가액 : 9억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636번지
- 보증금 1천만원, 1년 1백만원
- 시설권리비 2천만원~3천만원 사이 조절가능
- 법당,요사체 시설 완비되어있음
- 몸만 오셔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음.

010-9761-3588

사찰·터(암자,포교당)상담전문

살분 ⇄ 팔분

- 사전문 중개한 경력이 많음
- 전국 보유하고있는 정보 많음
- 비밀보장,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성의로 상담합니다.

(불자업소)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절충

010-8339-5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종중땅
- 평수 : 850여평중 텃밭432평,국유지250여평,법당30평,요사채2,종각,논1200평 ● 타인에농사 맡겨 백미80kg 10가마 수입 ● 위 건물과 전답, 국유지는 승계 개인화 ● 사찰 모든 권한위임을 서류로 해줌
- 가액 3천 5백만원

010-7182-7646

◑ 입종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사찰 기도(터) 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밀양 초동. 토지 : 1136평. 관리지역
- 가액 : 1억6천 (은)1억5천

010-9906-36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 안내

- 위치 : 논산
- 건평 : 125평 +문중땅 30평 (총 155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법당 뒤 자그마한 텃밭
- 주차 2대 가능, 차가 여러대일 경우 동네 넓은 주차장 있음
- 매매가격 : 9천 8백만원

010-9775-772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 3층 30평씩, 2층 법당 3층 공양간
- 보증금 1천5백, 월57만원
- 시설비 절충

010-8339-552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부곡시장윗시장상가2층 (약35평)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보증금 2천만 월40만
- 시설비 협의후 결정

010-9430-135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오산3길 29 ● 대지 175평, 요사 30평(방3,주방, 거실,다용도실,욕실,에어컨,엠프 등 최적의 시설완비) ● 법당 대웅전 15평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외부화장실(남,여), 창고 5평 ● 수려한 조경과 태양광 설치로 전기세 월 5천원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금 1억포함)

010-8947-6370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문동길 149-88번지
- 법당1개, 요사채2개 밭5천평, 산2만천평
- 가액 : 5억원
- 아래에 봉화댐 조성중

010-5421-7624

중·대형 사찰들의 치명적 실수

고가의 바가지 음향시설에 복잡, 불필요한 엉터리 부속을 잔뜩 채움으로 1.사용불편 2.고장많음 3.저질소리 4.원인은 산사 스님들의 어두운 정보력을 이용한 업자들의 농간 때문!

염불은 청아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율에 염불을 실려야 하며 천수경을 수 천번 반복해도 절대로 재탕 시비 안하는 원인은 오직! 소리 가락에만 심취하기 때문!

최신 디지털시스템의 장점 : 1.기존시설과 현장소리 비교시 장난감 차이! 2.가격 $\frac{1}{3}$, 3.원하는 소리만드는 기능 내재, 4.설법은 성우소리! 5.염불은 마이크와 2m에서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 6.최신 간편 간단시스템으로 앰프다루기 1초!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방문시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장기할부 가능)

▣ **소리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 주 문



은해사불교대학 졸업식

돈관 영천 은해사 주지 스님은 3월 7일 오후 2시 은해사 중악관 2층 육화원에서 은해사불교대학 15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양주 청련사 주지에

상진 (재)천년고찰청련사 이사장 스님은 구랍 25일 열린 청련사 산중총회에서 제29세 청련사 주지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한국인 종교부문 대상

자용 10.27법난피해당사자모임 회장 스님은 구랍 22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열린 '위대한 한국인 대상' 시상식서 종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불청 제72차 정기총회

하재길 (사)대한불교청년회장은 1월 1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인재불사에 1000만원 희사

락서암, 제1회 락서암장학회 장학금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소재 락서암이 인재불사를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락서암(주지 수월)은 구랍 27일 부산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제1회 락서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중학생 5명에게 각 30만원, 고등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6명 각 100만원 총 1000만원이 전달됐다. 장학생은 부산 서구청을 통해 추천받았으며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태도로 솔선수범하는 학생을 선발했다.

수월 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며 "마음을 거울삼아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마음 운전을 잘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락서암장학회는 주지 수월 스님이 설립해 사비로 장학금을 십시일반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월 스님은 "그동안 사찰 불사로 많이 바쁜 시기를 지냈는데 이제는 평소 마음을 두고 있던 참된 불사, 인재불사에 더욱 주력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선정할 때 종교를 넘어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재기자

"생명나눔 동아리 고교 운영 본격화"

Interview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16세 이상도 부모 동의없이
장기 · 조직기증 희망등록 가능
"종립고교 업무협약 확대할 것"
수익사업 증대위한 TF 구성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한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사찰과 대학교, 군부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에도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월 6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일선 고등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생명나눔 동아리 운영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 · 조직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이 개정되며 이뤄진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광동학원 소속 광동고 · 의정부광동고와 서울도시과학기술고가 협약을 맺었다. 올해에는 수도권 소재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협약을 맺고 생명나눔동아리를 신설해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인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TF(테스크 포스)팀도 출범한다.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TF팀은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사무처, 홍보위원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한 생명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홍보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생명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발굴해 홍보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홍보위원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생명나눔운동 공로자들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나눔대상' 역시 시상부문에 보건복지부장관상 · 서울시장상 · 총무원장상 등을 추가해 확대 ·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교계에서 생명나눔을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법인 사무실에서 1월 환자 치료비 지원 선정자인 김주헌(5세, 차지증후군) 군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환갑 동창' 모교에 2억 원 쾌척

김창규 · 조기종 씨 동국대에
"환갑 회향… 학교에 고마워"



중학교와 대학 생활을 함께 한 동창생 2명이 자신의 모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동문인 김창규 씨(법학 80 · 사진 오른쪽)와 조기종 씨(전자계산 79)는 구랍 30일 동국대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전북 정읍이 고향인 김창규 씨와 조기종 씨는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3년간 같은 학급에서 수학하고 대학도 동국대에 함께 진학했다. 현재 김창규 씨는 변호사로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기종 씨는 미국에서 식료품점과 육류유통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모교 동국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두 동문은 올해 환갑을 맞이한 기념으로 동국대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씨는 "30년간 사회에서 나를 표현해온 대표적인 수식어가 동국대였다. 모교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스님, 불교신자 등 동국대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분들도 기부를 하는데,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은 우리 동문들은 당연히 학교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미국에 있는 조기종 씨 역시 "항상 모교에 대한 애정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친구인 김창규 변호사가 함께 기부하자고 권유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모교에 기여할 기회를 얻어 오히려 고맙다"고 전했다.

이에 윤성이 총장은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동문이 자랑스럽다. 동국대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창규 · 조기종 동문 같은 분들이 모교에 아낌없는 애정을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밀양불교연구회장 이취임

최종성 제16대 회장 "적극적 봉사 전개"



밀양불교발전연구회는 구랍 26일 밀양용궁사 대법당에서 '제16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최종성 신임 회장은 "'믿으면서, 배우면서, 나누면서'라는 슬로건 아래 각 신행단체와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채롭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운문승가대학 졸업생 배출

한문불전대학원 등 총 25명 졸업증 받아



청도 운문사승가대학(학장 진광)은 1월 8일 제8회 한문불전대학원 및 제56회 운문승가대학 졸업식을 개최하고 한국불교를 이끌 비구니 인재를 배출했다. 졸업식에서는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각 스님 외 4명의 스님과 운문승가대학 도림 스님 외 19명 등 총 25명의 스님들이 졸업증서를 받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포교사단 신년하례법회

1월 4일, 강윤구 제11대 단장 공식 취임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1월 4일 광주 수자타 2층 연회실에서 '2020년 신년하례법회 및 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11대 단장에 취임한 강윤구 단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늘 수행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년이 시작되는 경자년 동방의 빛이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민족관 그리고 종교의 일그러진 법도를 비추니 모든 종교가 괴멸 커져가는 민족의 얼과 혼, 윤리도덕이 도인들을 다스려 말법과 병겁이 시작 각종 질병과 흑사병인 소두무족균으로 고통 받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 오직 육경신도인만이 만중생을 구하는 귀문장생법 안에 만법을 다스리는 천하에 비밀이 다 들어있는 루진통 대법회

이비서는 하늘이 금하는 천기누설인바 재물을 희롱한다하여도 진인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천서이므로 오직 진인에게만 이 법을 전하노라!! 말법과 병겁에 이름 모를 각종 괴질과 수두무족균은 구천을 떠도는 해탈 못 한 이매망향귀신, 비쉬객귀잡신, 책주귀신, 유산빙의신의 장난이므로 수행마장 출세, 학업, 고시, 결혼, 사업, 부도, 교통사고 발생 등 이 법을 다스리는 법은 오직 육경신루진통 도인만이 만법을 다스리고 중생을 구하는 비문장생법비전서 임으로 천신, 만신, 귀신, 잡신, 종교를 파괴하는 각종 귀신을 다스리는 팔신장을 부릴 수 있는 공신법으로 제갈공명, 조조, 관운장, 유비, 강태공, 동방의성군,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묵대사제자, 서산대사, 사명대사, 의병술도통, 홍의장군, 격암선생, 강증산, 차천자, 최수운, 경허만공대선사, 방하남, 탄허선사, 윤고암대종사 등께서도 이 비전서를 필독. 단본의 비서이므로 시중에 멸종된 서적으로 역대 도인, 신선, 성현 등 전술로 의술, 도술, 병술, 점술, 침술, 마술 신비의 부적인 진태인태을진법으로 내육신 속 주인공 내부처를 찾는 성불도통만이 루진통이므로 부처님께서도 루진통 수행 못한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니라하신 비법인 것이다. 경자는 루진통 입문하시어 의통력, 신통력, 통솔력 건강증상대운으로 지부추명, 천방부호이 땅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리는 장생법인 루진통 입문하시고 역대도인들의 필독하신 바문장생법 단본을 구입 원하시는 분은 오직 진인만이 이 법을 받을 수 있는 비전법인 것이다. 눈과 귀가 있는자 진정 내부처를 찾는 도인과 불제자는 보고 들을 지여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해시 ■ 해제 : 18일 토요일 해시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기도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예금주 : 곽한영) / 천문천서 교육비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010-9718-4449



귀 천지공사 불선도.육경신 천문도통회 총본산 예성 용천사
귀 불교법인 단체총연합회. 천룡진인 환성 태일 대종사 합장

명상書 톺아보기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

‘분노’, 오히려 활용하라

〈1〉 21세기의 분노

시시각각 일어나는 ‘분노’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불교의 가르침에서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은 美컬럼비아 대학의 로버트 서먼 명예교수의 〈분노〉 속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다. 분노의 파괴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대한 순간

분노가 가져오는 끔찍한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어 성찰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분노는 서양의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오랫동안 ‘대죄’로 여겨졌다. 동양의 불교에서도 분노는 번뇌, 또는 독으로 불리는데 그 것은 탐욕, 무지와 함께 삼독에 속한다. 삼독은 고통스러운 삶의 진정한 원인, ‘삼사라’ 즉 해탈하지 못한 채로 좌절하며 무한히 윤회하는 삶의 진정한 원인이다.

미국과 세계가 다시 한번 큰 전쟁을 일으킬 위험에 처한 지금, 고통스런 주제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함께 분노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전쟁’이란 조직화된 분노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문화적으로 조직화된 분노는 아킬레스부터 터미네이터에 이르는 영웅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군국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생활방식의 표준을 세우고 있다.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분노는 ‘테러’를 정복하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인 세계전쟁이 되고 있는데, 그 테러 속으로 기업화된 정부와 그런 정부의 언론 홍보가 우리를 오도하고 있다. CIA의 前 국장은 점점 커져가는 이 세계전쟁을 공공연하게 ‘제4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 이는 한 세기가 넘게 쉬지 않고 증대하고 있던 지구적인 전쟁체계가 확대된 주요사건이다.

우리는 여태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드로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이 모든 전쟁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90년대에는 냉전의 종결이 곧 역사의 종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의 여명에서 희망의 빛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새로운 세기 안에서 평화로운 지구 사회가 막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가 갑자기 전복되고 전후의 ‘평화배당금’ 일체를 탕진했다. 게다가 9·11 재앙은 성서의 ‘바벨탑’ 대참사를 우리의 대중 무의식에 되살렸으며, 이제 우리는 ‘테러와의 무한전쟁’ 안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한전쟁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됐다.

분노는 전쟁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수소폭탄의 분노, 화학적 분노, 생물학적 분노는 대규모 살상무기가 되어 이소행성 위의 모든 생명체를 파멸시킬 수 있음이 분명하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세계전쟁은 여러 형태의 분노를 신격화한다. 그러한 신격화된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계체제를 지배하고, 그 체제의 폭력적인 경제를 지지하고 있고, 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예술, 문화, 미디어, 교육커리큘럼, 권위주의적 공동체와 가족형태, 개인의 인격 형성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본성을 살펴보며 분노가 정말로 죄인지 독인지를 평가하고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더 급선무가 되었다.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분노는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이고 타고난 것임이 틀림없어서 견디며 체념의 태도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는 금생에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하여 용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지구적으로 그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인가?

분노에 항복하기

서양에서는 분노는 어떻게 ‘대죄’로 부상했는가? 분노는 죄 가운데서도 ‘치명적’이거나 ‘죽어야 할’ 죄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분노는 신 안에서의 영혼의 생명을 죽여 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지복(Divine bliss)과 연결하는데 치명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심정에 분노를 품은 채로 죽는다면, 즉 분노에 대해서 참회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분노로부터 해방되려고 행동하지도 않고 죽는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에서 인간이 사후 미래에도 천국이나 지옥에서 진실로 존재한다는 우주적인 맥락이 없었다면 분노가 치명적이라고 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동양에서도 ‘치명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분노는 금생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거나 자신을 죽이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존재로 윤회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옥의 영역에서 태어나거나 아귀, 축생, 아수라로 태어나게 하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처지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생물학적 선택지는 참으로 넓고도 끔찍하다.

‘분노’ 성찰 시대적 과제
분노 대한 죄의식 약화
‘의분’ 등 활용 세태 증가
행복 향한 에너지로 인식

많은 현대인들은 여전히 분노를 ‘치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은 죄라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정도로 여긴다. ‘죄’는 근본주의자나 신비주의적 종교그룹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널리 통용되는 관념이 아니다. 미래의 존재를 상식적으로 상정하던 우주적 맥락은 극적으로 사라져 갔다. 그래서 ‘치명적인’이라는 말은 이제 금생에 행복의 기회를 얻는데 치명적으로 실패한다는 뜻, 그리고 아마도 죽이고 죽임을 당해서 금생에서 치명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음을 뜻할 뿐이다. 더 이상 감정이나 행동이 영혼에 치명적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유물론자들과 이념적으로만 종교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영혼’을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의 윤회나 개인적 지속성에 대한 본능적 관심이 거의 없다.

종교의식 조사원들에 의하면 거의 90%의 또는 터무니없는 높은 비율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내세에도 존재하고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네 주변사람들에 대한 내 경험으로 보면, 그런 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조사결과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아마 거기 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세란 거기에 이르는 데 분노가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세계는 아닌듯하다. 적어도 분노는 예수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내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 지독히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예수는 그들 스스로 이교도와 죄인들, 천한 자든 이방인이든 신의 비선민 모두에게 일종의 의분을 드러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용납한 듯하다.

그래서 현대 서양의 종교에서 분노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노는 폭풍이나 번개처럼 자연현상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분노는 남성의 특권이나 권위의 특전으로 존중되기까지 하는 것 같다. 여성의 분노는 아마도 좀 더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으로 잔소리나 히스테리로 생각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의분, 즉 범죄와 부정에 맞서는 의분, 의무태만자와 주제넘게 나서는 사람들에 맞서는 의분, 사치와 빈곤에 맞서는 의분이라는 것도 있다. 의분의 대상에는 처벌해야 할 개인에서부터 박멸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이 있다. 그래서 일부의 현대 종교인들은 분노를 어느 정도는 도덕적,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제하려 분투노력해야 할 것으로, 또 어느 정도는 존중하고 많은 사용처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란 궁극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이해나 통제를 넘어서서 자연의 영역이나 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종교인들은 사형과 엄격한 교도소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분노, 그리고 마약, 테러리즘, 문맹 등에 대한 성전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분노를 좋아한다.

그런데 세속주의자들은 분노에 대해서 아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대죄’로서의 분노를 종교기관들이 자연적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개념들의 쓰레기통에 넣는다. 세속주의자들은 죄나 죄책감이라는 관념 일반을 극히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가 심신을 쇠약하게 해서 건강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최신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증거에 오류가 없는지, 즉 실험실 안에 종교적 사유가 침투해서 생긴 편견에서 온 오류가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여하튼 이런 세속주의자들은 분노를 좋아하고, ‘분노 조절’이라는 최신 기술을 습득해서 분노를 유용한 감정이나 에너지로 복권시키려고 열심이다. 특히 해방된 현대여성들은 분노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접근을 주장하기로, 그리고 그 분노를 사용해서 남성우월주의자의 위협과 지배, 억압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들도 분노가 자신이나 인간관계,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일 수 있음을 깨닫고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인내해 온 자신들의 무자비한 억압적 상황 속에서 압제적인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노가 보이지 않게 지하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분노가 자신들 속이 아닌 열린 곳을 향하여 밖으로 분출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세속주의자들은 분노를 그러한 기획에 사용될 강력한 에너지로,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행복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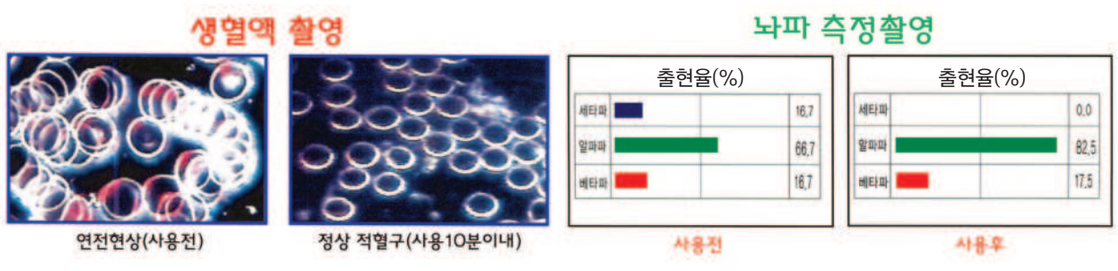
분노는 정복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일단 분노가 정복되면 분노가 이전에 독점하던 그 에너지를 활동적으로 사용해 사물과 사건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글은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대행 스님

자기 주인공이라는 보배 그 자체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하기 이전에 서로가, 각자 자기가 자기 발견하는 데 목적을 삼는 공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말을 또 되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만날 되풀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불교다 하면 불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교라는 건 아주 옳고 바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구 안에서, 즉 독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마 인간인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벌레가 하나 뚝 떨어지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매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매미는 전자에 자기가 벌레로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매미가 됐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자기가 전자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해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올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평소에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옷을 벗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벗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생겨났다면 벌써 "나는 옷을 벗기 위해서 생겨났다." 즉 죽기 위해서 생겨났다, 또 죽는다면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걸 첨보해서 둘이 아니게 생각을 한다면 생사윤회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죠. 끄달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을 하느냐? 첫째 내 몸, 둘째 가정, 셋째 사회, 넷째 국가, 다섯째 세계 전체에 우리가 너무도 하는 일도 많지만 오늘은 우리 몸으로부터 얘길 잠깐 해 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이 태어날 때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즉 말하자면 나 자체, 그러니까 모든 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그 근원 자체가 한데 합쳐져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면 어린애가 되듯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도 씨가 없으면 안 되는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까 인간 하나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컬어 삼신이라고 우리가 전자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말입니다, 물주머니에서 터져서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수화풍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 그것이 바로 큰 성을 이루었고, 성을 이루었으니 온기가 거기 등장을 했고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지수화풍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지금 몸도 지수화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물질이 무엇인가? 내가 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태초에 생긴 자체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갖은 각색으로 해 가지고 있는 세균, 그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 모습이 바로 태초의 자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그렇게 각각 제 모습을 해 가지고 지금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이 인간의 별성 하나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부터 이 세상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 태초의 모습이 하나가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지금 몸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그 겹겹의 세포의 모든 것이 있는데, 선장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 즉 말하자면 공생이다. 우리가 전체 합치면 공생이다, 공용이다, 공체다, 공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져 본다면 내 몸 하나가 은하계도 될 수 있는 건가 하면 바로 혹성이기도 하고 별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한시반시를 그냥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이 세상 우주가 전체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몸이 자도 깨도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 하나를, 한생각을 잘하면 자기 몸을 잘 끌고 다닐 수가 있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자기 몸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에 잘 끌고 가면 차도 성하고 일이 잘 성사가 되고, 잘못 끌고 가면, 어디 꼬라박기라도 하면 몸이 다치고 이러듯이 사람 몸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떠한 쇼크를 받았다거나 이래도 그 몸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기가 치밀어서 말입니다. 병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 자체를 어떻게 먹어야만 되느냐? 내가 나고서부터 세상은 일어난 거니까 나로부터 화두가 되며 나로부터 근원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사대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을 알라고요. 자신을 알아야 남을 알고, 남을 알아야 서로 공생하는 거를 알고 공용하는 거를 알죠. 그럼으로써 한마음이 선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 중생들을 지금 배에 태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느 종교를 나누어서 찾을 게 아니라, 전체 우리는 바로 공생이며 공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고 비는 것이 불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이라고나 할까. 인간은 90%, 99%가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생각을 낼 줄 아니 그게 부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몸으로부터 마음을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몸을 움죽거리면서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도 내 몸에 있고 화두도 내 몸에 있고, 참선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똥을 누든 밥을 먹든 자든 깨든 참선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고 펜대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참선입니다. 그건 자기 주인공으로 인하여 자기가 움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긴 바로 자기 주인에 의해서, 즉 운전수에 의해서 차가 움죽거리듯 그럴 뿐입니다. 인간은 이 오온으로써 바깥 경계를 보고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서 또 가미해 가지고 안에서 만법을 또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찰나찰나 우리가 쉬지 않고 가는 그 도리,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눈도 고정된 게 없고 귀도 고정된 게 없고, 말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상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걸어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옛날부터 이런 예가 있죠. 사회에서 일을 하시려면, 또 가정에서 내 몸, 내 가정, 사회를 이끌고 나가시려면 이런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에는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가 교류되지 않고 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부딪칩니다.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내 마음먹은 것이 저분 상사한테 말을 하지 않고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거든. 그러나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체 무전통신기, 이거는 뭘 뜻하느냐? 이것은 즉 듣는 것 천이통, 요 부분 하나를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체 망원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무전 망원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의 눈.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속의 눈. 또 컴퓨터라고 그러면 숙명통을 말합니다. 요건 시쳇말로 그냥 이렇게 옮겨 놓는 겁니다. 또 탐지기는 타심통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육신통이다 하는 거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움죽거리는 이 지금 우리 육신 자체, 즉 무에서 움죽거리는 거, 유에서 움죽거리는 거, 우리가 마음을 내면 그대로, 즉 말하자면 내 모습 없는 모습이 그대로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그 하나만 있는 줄 알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한 분일지라도 한생각을 낸다면 두 개도 되고 만 개도 될 수 있고 천 개도 될 수 있는 그런 보배가 자기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망원경이니 통신기니 탐지기니 컴퓨터니 이러한 문제, 또 영사기니 책정기,

☞ 22면으로 계속

2020 謹賀新年 경자년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Tel 055)232-7819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는 부처가 항상 계십니다

☞ 21면에서 계속

이 책정기는 어떠한 거를 말하느냐. 누진통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한다, 이렇게 '정한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오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자연히 생동력 있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도 있고, 눈이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가고, 눈 간 데 코, 냄새,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이고 내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공장에 피레가 돌아가면 베어링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내가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걸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바로 설계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까지도 중간 지점에서는 저이가 집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설계를 떠서 바로 허가를 내서 집을 짓게 되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지금 생활이 전부 과학입니다, 생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실험도 안 해 보고 연구도 안 하죠. 해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모르거든요. 무슨 음식을, 이 세상에서는 그 음식을 보지도 못했고 먹어 보지도 못했고 맛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 생각을 해 봤어야 뭐, 연구를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그러죠. 그런데 도저히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불법은 그저 가서 빌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비는 건 줄만 알고 계신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만들지 않고, 하지 않고, 연구 안 하면 그것은 계발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들이고 내는 그 베어링처럼 돼 있는, 스스로 작동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동적으로 지금 움죽거리고 있는 게 얼마나 묘합니까.

그런데 더 묘한 거는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한 그 자체가, 여기 내 전화통이 있는데 저 집에 전화통이 또 있거든. 고걸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아우가 죽게 됐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고 또 어디가 잘못되고, 승진을 해야 할 텐데, 뭐 어째야 할 텐데…, 이런 사단이 허다히 많죠. 살림에서요. 그런데 걔도 전화통이 있고 나도 전화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데 얘깁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아시죠? 비유하는 겁니다.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전화번호를 안다. 그럼 내 전화번호는 동생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전화번호가 뭐냐 하면 '아이고, 우리 동생이 지금 승진을 못했대.' 이렇게 된다면 '몇 해가 되어도 남은 다 하는데 못했대.' 이걸 형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신망의 무전통신으로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그 근본 자체의 전화번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내 전화통에 그 전화번호를, 자기가 전화통이라면, 주인공이 전화통이라면 걔가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으니까 내 전화통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가는 줄 모르게 그리로 가서 거기서 벨이 울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사나 모든 걸 운행을 해 가지고 나가는 그 도리가 바로 무전통신기로서 항상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섯 가지를 다 운행을 할 줄 알아야만이, 한데 합해서 굴릴 줄 알아야만이 회사가, 저 기계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마음이 스스로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 물리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연결이 되고….

지금 여러분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마는 무의 법 유의 법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보이는 물질로만은 지금 막이 내리게 돼 있단 소립니다. 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모든 점이 지금 발달이 돼 가고 있는데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 과학이고냥, 생활이 과학이니라. 연구들 잘하라. 자신을 알라.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팔만사천법문을 해 놓으시고도 거기 묘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한 마디도 안 했노라." 하신 그 한마디에 그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스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회장이, 지금 회장이 그래요. 언젠가 "제 사촌동생이 폐병을 앓아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야지, 네 밥을 내가 먹어 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가서는 "아휴, 정말 스님! 제가요, 제 전화통을 돌리니까요, 걔 전화의 벨이 울려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불쌍한 동생을 건졌습니다." 그러거든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고 한 일을 할 줄 알았다면 수만 가지를 할 줄 알아요. 하나가 물리가 터지면 전체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그 도리를 모른다면 점점 더 급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의학이 과학이라고 하지마는 지금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또 물질로써 광대무변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허망하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생각과 그 무의 광대무변한 근본 자체와 더불어 삼위일체가 회전이 된다면, 우주의 근본도, 하늘과 땅, 모든 것의 근본이 인간의 한생각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요런 거를 한번 생활의 지침이 될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렇게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실험을 통해서 안 해 봤으니까 그러실 테지마는 불교는 이 절의 불교가 아니라 전체가 불교입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데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몇십 년이 걸렸겠습니까? 수없는 나날이 걸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쪼그만 걸로, 또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걸로 이렇게 해서 수없는 나날을 거쳐 온 역사가 있듯이 말입니다. 또 조그마한 수레로 인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판국이 됐으며, 지금 차도 별의별 차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구루마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했듯이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 때 시일이 걸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한 시일도 있겠지마는 우리는 수없는 광년을 거쳐서 실험을 통해서, 살아나오던 그 습에 의해서 얽히고설킨 그 자체가, 살면서 다리가 짧아서 남한테 쫓기다가 죽고 다리가 길어서 남한테 쫓기다가 죽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고, 우리 일체 만물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물만생이 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사람이 동작을 움죽거려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 난리가 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폭탄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다 죽인대." 한다면 선생님, 가만있겠습니까? 그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은 이런 데서 6·25처럼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날까 봐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과 둘이 아닐 때, "둘이 아닐 때" 하는 건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즉 오온의 그 베어링이 스스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딱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둘로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로 그냥,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일할 때는 그 사람을 나한테다 집어넣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하나요, 저쪽으로 가도 하나죠. 그랬을 때에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 의해서만 움죽거리게 돼 있으니까요.

자기는 그 도리를 모르니까 그저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틀려면 트는 겁니다. 틀어서 저쪽으로 가든지 여기에 해를 입히지 않고 돌아가든지 그럭하게 되죠. 즉 말하자면 태풍이 온다고 하는 것도 또는 인공위성이 떠가다가 잘못되는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두를 한 생각으로 움죽거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장난으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급할 때 우리가 다, 난리가 나면 칼 빼듯이, 강도가 들어와서 죽인다고 할 때 여러분이 급하면 아무거나 들고 맞히게 돼 있죠. 그와 같이 그건 자기가 죽고 사는 걸 모를 때, 그렇게 급할 때 쓰는 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도 그런 일이 꼭 그렇게, 어떠한 문젯거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그 집에 있어서는 큰 일입니다. 여기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우린 이런 일 또 딴 집은 저런 일 하고많지만, 이런 집은 작고 이런 집은 크고 이렇겠지만 크나 작으나 그 집에 있어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사는 그 자체 살림이 바로 종교기 때문에 참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자도 참선이요, 깨도 참선이요, 일을 해도 참선이요, 똥을 눠도 참선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는 부처가 항상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기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이라는 보배, 그 자체를 잃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 주인공에서 일체 만법이 나올 때 그 일체 만법은 여기서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속 눈을 통해서 겉 눈으로 봐서 나쁘고 좋고 그르고 옳고 이런 거를 안으로 들이면 들이는 대로 거기에서 또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들이고 내는 것을,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이날까지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현재 해 가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라는 얘깁니다. 맡겨 놓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았을 때 바로 새 물건이 생산되듯이 참나가 생산이 돼서 발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진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더 말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우리가 지금 사회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야, 이런 거 모든 게 주인공이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주인공에 의해서 움죽거려 주기만 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인공, 당신이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저리로 좀 옮겨서 앉았으면 좋겠다든가, 옮겨서 섰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주인공에 맡기고 참 믿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실험해 나가다 보면, 그러한 것도 한번 실험해 보고 그런다면 그게 바로 연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끄만 데서부터, 내 생활에서부터 말입니다. 어디가 아파 보십시오. 벌써 어디가 탁 부딪쳐서 아프면 대뇌에까지 다 통과가 됩니다, 이 몸에. 몸에 어디가 찌르르하면 벌써 여기까지 다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알죠. 그러면 그것을 주인공에 다시 되놓을 땐 벌써 이 속에서 다, 그것이 도로 그리로 가서 다 이게 명령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이 문제 자체가 무의 법을,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딪치는 이 자체를 회전시키면서 우리가 계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이익이 있고 지침이 되고 공덕이 있고,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도, 자녀들을 기르는 데도 뿌리가 썩지 않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여러분도 뿌리가 썩으면 가지나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지 않고 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무뿌리는 싱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싱싱하게 제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서 제 나무에서 무르익었을 때 남들이 우러러보고, 그 열매의 맛을 보려고 모두 여러분을 우러러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겸손하게 잘 나가실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자동적이고도 활용적이고 연구적이고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남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서
겸손하게 잘 나가실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지름길입니다.

※위 법문은 1987년 1월 24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모집◈

㉮ 최신 시설의 행자수행관 있습니다.
㉯ 울력, 노동의 최소화
㉰ 3개월부터 보시금 지급합니다.
㉱ 시대에 맞는 민주적 교육
㉲ 無一 우학 큰스님 상좌가 됩니다.
㉳ 수계 후 공부 및 수행비용 100% 보조합니다.
㉴ 만 50세 미만 남자 (여자는 위탁)
㉵ 기본 교육 마치면 미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TEL 054-753-8228

탈 종 공 고

• 법 명 : 연 서 (속명 / 박서연)
• 승려번호 : 1005-0278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수사
• 주 소 :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산업단지2로 130
• 주 지 : 혜광 (속명 : 김명국)
• 승 번 : 041-0209

본 사찰과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법 명 : 범 오 (속명 / 임주영)
• 승려번호 : 0187-01818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열린 마음

명상의 핵심은 '완전히 열린 마음' 입니다. 개념을 벗어난 청정한 마음입니다. 생각(관념)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명상이 아닙니다. 청정하고 비어있는 마음이 지혜와 창의성 그리고 힘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자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몸소 체험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 여법한 삶의 비결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창의성의 비결이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유의 비결입니다. 자각 속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여는 것이 수행의 비결입니다. 찰나찰나 시공을 초월한 자각 속에서 생각을 포기하세요. 늘 의지할 수 있는 귀의처입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① 실크로드– 시안서 마이지산 석굴까지

1만 감실 부처님들… 여기가 '佛國土'

출가 후 내 오랜 소망 중의 하나는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 을 따라서 실크로드와 천산산맥, 그리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 천축(天竺)으로 구법여행을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페르시아 왕조의 이란까지 가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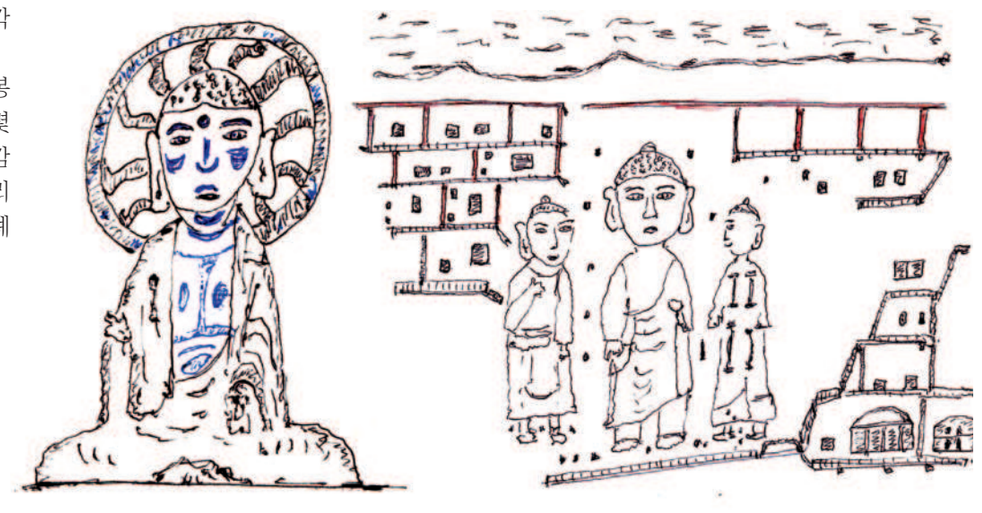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설정 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를 가졌다. 이번 여행의 부제는 서산대사의 선시 중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은, 훗날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라는 구절이다. 그 옛날 천축구법승과 대당유학승의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 것이다. 아니 그들을 뛰어넘어 새 길과 희망, 깨달음과 함께하는 것이다.

지도법사 설정 스님과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스님들이 이번 순례에 수희동참했다. 그동안 그토록 한번 가 보고자 염원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인지라 모두들 감격한 듯한 모습들이다. 이렇듯 마음에 꿈을 품은 그 순간부터 순례는 시작된다. 혼자 꾸는 꿈은 한낱 꿈으로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법이다.

장안(長安, 현재 시안)은 당나라의 수도로 '팍스 차이나' 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다. 모든 문물과 상품은 이곳을 출발해 실크로드를 거쳐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로마에까지 이르렀다. 그곳들의 종교와 교역물들은 거꾸로 이 길을 거쳐 장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단언컨대 장안이란 도시는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장안성 앞에는 대상들이 실크로드를 향해 떠나가는 모습이 장엄하게 조각되어 있다.

우선 시안(西安)을 떠나 부처님 지골사리가 봉안된 법문사(法門寺)로 향했다. 마침 한 달에 몇 번 지상으로 올라와 친견할 수 있는 날인지라 감격과 환희로 사리를 친견했다. 그리고 원래 사리가 봉안되었던 팔각구층전탑 안으로 들어가 참례할 수가 있었다. 정확한 연대가 밝혀진 그야말로 국보(國寶)와 같은지라 실로 희유하고 수승한 인연공덕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에 문화대혁명 당시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이 불지사리를 훔쳐서라도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다. 마치 어느 신라승이 육조혜능의 머리를 가져다 쌍계사에 봉안하였듯이 말이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별 수 없는 노릇이다.

보리단 쌓아놓은 듯한 마이지산
낭떠러지마다 크고 작은 감실
안에는 불보살상과 벽화들 남아
석굴 조성 佛者에 경외와 찬탄을



마이지산 석술서 만난 고색창연한 보살상과 석굴 동쪽 삼존불과 전경. 모두 진광 스님이 순례 중 그린 그림들이다.

텐수이(天水)에는 중국 4대 석굴 중 하나인 마이지산(麥積山) 석굴이 있다. 마이지산은 말 그대로 보리단을 쌓아 놓은 듯한 모양에 곳곳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 흡사 개미집을 보는 듯 하다. 낭떠러지에 봉안한 불상은 대부분 소조불이다. 낭떠러지에 연결된 194개의 크고 작은 굴과 감실에는 북위시대부터 당나라 양식의 불상까지 모두 7,200여개의 불상과 벽화가 남아있다고 한다.

북송시대의 설화집인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만개나 되는 감실과 천개나 되는 방이 있는데, 비록 사람의 힘으로 이뤘다하나 신의 솜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기록이 그저 과장된 찬사가 아님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왕이나 권력자가 아닌 무수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피땀 어린 신심과 염원이 만들어 낸 작은 불국(佛國)이자 정토(淨土)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오지에 어찌 이런 경이로운 대작불사를 이루었겠는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 깎아 지르는 마애삼존불 앞에 우두커니 선채, 온 몸과 마음을 모아 지심정례 예경을 올린다. 마치 금방이라도 돌에서 뛰쳐나와 너른 품에 우리 모두를 안아주실 듯 하다. 오늘은 또 누가 올런지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마침내 그가 오면 빙그레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실 듯한 부처님이다. 대자대비한 부처님 품에 안겨 단 한 순간이라도 영원을 꿈꾸며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진다.

무엇보다 이곳을 거쳐 간 어느 구법승처럼 단 하룻밤이라도 이곳에서 온전히 하루를 보내고 싶어진다. 새벽의 여명과 정오의 작열하는 태양빛을, 석양과 노을에 물든 저녁풍경,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향연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다. 아니 한 철, 혹은 한 생을 바쳐 이곳에서 수행정진하며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다. 이 석굴을 만든 모든 이들에게 경외와 찬탄을 바친다.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 법이니 이제 돌아서서,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만 한다. 문득 고개 돌리니 부처님께서도 말없이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다. 우리 모두가 이 길 위에서 좋아지기를(途中善爲)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이시다. 아니 선재동자의 구법을 돕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리라.

선시에 이르길 "졸졸졸 흐르는 샘물, 산속의 모든 이가 함께 마시네. 여보게, 각자 표주박 하나씩 들고 오셔서, 달덩이 하나씩 건져 가시게나(無窮山下泉 應供山中侶 各持一瓢來 總得全月去)"라고 하였다. 순례 대중 스님들의 가슴에도 저마다 월인천강(月印千江)의 부처님 마음을 닮은 달덩이 하나씩 가슴에 담아간다. 나 또한 비록 이곳을 떠나가지만, 내 마음 한 조각 붉은 마음을 이곳의 허공과 바람에 부친다.

〈조계종 교육부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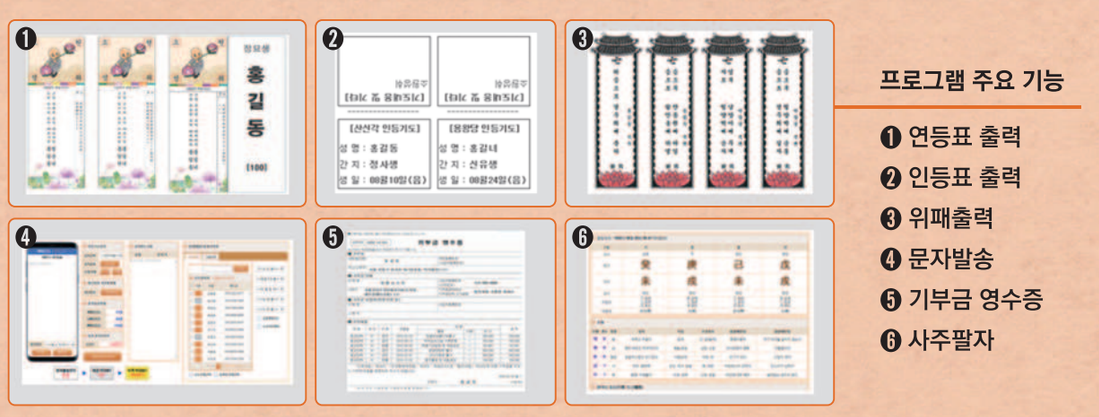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새해에도 BTN 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성우스님 시집 '마음' 발췌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